朝鮮日報
夕刊
四日(水)

何氏中心으로諸要人 居仁堂에參集!
宋氏中央對策의不徹底를詰難
何氏主權保全을強調

【北平三日發聯合】中央特使何應欽氏를 마지하야 北中實力派要人은 三日午後十時부터 居仁堂에 會合하야 北中時局對策을 俎上에 올리노코 大評定을 遂하엿다 參集한 人物은 平津衛戍司令宋哲元氏 察哈爾省政府主席蕭振瀛氏 北平市長秦德純氏等實力派의 要人及 中央代表福建省政府主席陳儀氏 李鐸一氏等이다 席上에서 宋哲元氏는 北中의 自治運動의 經過를 詳細報告하고 澎湃한 民衆의 要望과 赤化東漸의 危機를 指摘하고 銀國有令에 나타난 中央의 認識不足等에 對하야 忌憚업시 意見을 開陳하고 北中에 對한 中央의 對策이 不徹底를 極하야 專혀 一時를 糊塗하는데 汲汲한것을 詰難的語調로 指摘하고 中央의 具體的對策提議를 要求하엿다 察哈爾省政府主席蕭振瀛氏가 또 宋司令의 陳述을 補足하야 善後對策의 緊急한 所以를 強調하엿다한다 以上實力派要人의 所見에對하야 何應欽氏는 中央의 苦衷을 力說하고 自治의 要求가 民衆의 意向을 反映하는것이가 自治工作에依하야 中央에 對하야 如何한態度를 取할方針인가 等에 對하야 反復質疑를 提示하엿다 特히 何應欽氏는 主權保全을 期하는 中央의 立場을 宣明하고 如何한 形態 如何한 意味라할지라도 自治政體의 樹立을 默認할수업는 事情을 말하야 宋哲元氏等에對하야 極力 態度緩和를 要請한것이라고 解釋되는데 以上目頭업시 意見을 交換하야 雙方의 感情을 緩和하고 懇談에 入하엿다 (寫眞 上何氏 下宋氏)

北中大會議開始

何氏日本側訪問 三角折衝開始!

【北平四日發電通至急報】三日夜居仁堂에서 開催한 何應欽氏를 中心으로 南北首腦部會議에서 宋哲元氏等自治派는 北中自治運動의 前後情勢를 詳細報告하고그것에 基하야 對策을 協議하엿는데 何應欽氏는 四日午前中에 日本關係方面을 訪問해올러로이에 中央側과 北方自治派와 日本關係方面과의 三者間에 四日부터 深刻한 折衝이 開始될터인데 北中危局이 참으로 打開될는지 全部視線은 지금 이에 集中되게 되엇는바 歸趨如何로는 重大한 結果를 招來할는지도 모르므로 情勢는 極히 緊迫해왓다

宋氏膺懲을決議

【北平四日發電通至急報】宋哲元氏가 三日夜 高橋駐平武官에對하야 北方自治의 初志는 如何한 環境의 變化가 잇슬지라도 어데까지 旣定方針대로 實行하겟다는言明을 하엿는데 北中今後의 時局에 자못 重大한 關係가 잇는데 日本駐中軍部는 事態의 推移를 極力注視하고잇다 卽 何應欽氏는 事前에 이미 宋哲元氏와 깁흔 諒解下에 來平한것이 疑心업는바로 宋哲元氏가 中央政府의 妥協的解決策을 暗暗히 待望하고 잇는것도 明瞭하게 看破되는데도 不拘하고 高橋武官에게 如斯한 言明을한것은 首鼠兩端을 잡는것으로 볼수밧게업고 宋哲元氏가 이 言質을 깨트리고 中央의 命에 服從하는일이잇스면 日本側은 嚴重한態度로써 그 背信行爲를 問責하게될것이다

宋哲元氏 高橋武官訪問

【北平三日發電通】高橋北平駐在武官은 三日午後四時 中井天津軍參謀와함께 宋哲元氏를 訪問하고 一時間餘에 亘하야 北中自治問題에 關한 宋哲元氏의 眞意를 確探한바잇는데 相當히 深刻한意見을 開陳하고 宋哲元의 反省을 促하엿다

宋氏自治斷行을 高橋武官에誓約

【北平三日發電通】宋哲元氏는三日 高橋武官과의 會見에서 何應欽氏의 來平에 依하야 如何한 環境의 變化가 잇더라도 旣定方針대로 北中自治를 斷行하겟다고 明確히 誓約하엿다

佛議會休會

【巴里三日發電通】三日의 佛國下院은 午前午後에 亘하야 開會하고 그中間에 約二時間의 休憩를 하엿슬뿐으로 따시스트團體取締問題에 關한討議를 繼續하얏는데 드듸어 아모決定도하지못하고 겨우午後七時五分에至하야 散會하엿다 그리고佛國議會는 今日로써 五日까지 休會하기로되엿다

日本軍、何氏에게 斷乎南下를要求
重大聲明도發表乎

【天津四日發至急報聯合】日本駐屯軍에서는 何應欽氏의 北上이明白히 北中自治工作의 妨害가 되므로 一兩日中에 何應欽氏의行動如何를 監視하야 그結果에 依하야 斷乎何氏의 南下를要求하고 重大聲明을 發하기로되엇다

王家口保衛團 日本人을毆打

【天津四日發聯合】津浦沿線大城縣에서는 目下 自治運動의 氣運이 濃厚하게되엇는데 偶然各地方視察에 赴한 天津在住日本人山本某(三〇)以下十四名은 王家口에서 保衛團때문에 包圍되어 棍棒毆打等으로 무수하게毆打된다음에 最後에 就縛되어一夜 監禁되엇다 一行中에는 出血이 甚하고 生死危篤한 者二三名이잇서 三日午後 天津共立病院에 入院하얏다 大城縣長의報告에 接하야 河北省政府로부터 沈參議가 現場에 急行하야 一行을 天津에 護送햇는데 當局에서는 稀有의 日本人侮辱事件이라고 目下 實情을 詳細調査中이다

宗教團體法案 文部省決定

【東京電話聯合】文部省은 三日午後一時 本省에 宗教團體法案에 關한 省議를 開하고 松田文相以下가 出席協議한結果 宗教局作成의 宗教團體法案要項을 決定하고 同四十分 散會하엿다 따라서 各委員에게 右要項을 發送하고 來十日午後一時 文部省에 宗教制度調査會를 開하기로 되엇는데 今回의 法案要項과 前回 勝田文相時代에 貴族院에서 紛議가 만허 드듸어審議未了된 法案과 比較하야 更改된 點은 如左하다

一、教派 宗派 教團을 모다 法人으로할것
二、教派 宗派 教團은 主務大臣、寺院 教會는 主務大臣及地方長官의 監督에 屬케할것
三、單立教會는 原則으로 神道佛道를 認定한다 但 神道는 神道의 現狀에 鑑하야 例外로 附則에 當分間 認定치안흘것을 明記할것
四、宗教教師資格은 前回와가티 中等學校卒業以上에 限定치안코 相當한 實力잇는 者로 緩和할것

駐英中國大使郭氏 英國政府와折衝
九國條約適用을要請

【倫敦三日發聯合】倫敦駐箚中國大使 郭泰祺氏는 三日午前英國外務省에서 호어外相과 會見하고 長時間에亘하야 會談하엿는데 會談內容에對하야 備聞하건데 席上에서 郭泰祺大使는 北中情勢를 詳細히 說明하고 日本政府가 重大關心을 하고잇다는旨를 強調하야 九個國條約과 聯盟規約에 基하야 英政府의適宜한 處置를要請하엿다고 解釋된다 郭大使의 提言에 對하야 호어外相은 如左히 述하엿다 貴國政府의 提言을 기다릴것업시 英國政府에서는 北中情勢에對하야 深甚한 注意를不怠하고、九個國條約을 締約한 各國政府間에 緊密한 連絡을 講究하고잇다 特히米國政府間에는 華盛頓駐箚 린제大使를通하야 商議를 進行中이오 또 東京駐箚클라이브代理大使를 通하야 北中情勢에 對하야 日本政府의 眞意를 照會하엿다 英國政府는 九個國條約과 聯盟規約의 義務를 尊重하야 適宜의 處置를 取할 方針인데 刻下의 情勢로는 極東情勢에 介入하는것은 좀 困難하므로 英國政府로서는 爲先 第一로 伊에兩國紛爭을解決할생각이다

中國大公使動靜 介意할것업다
外務省의見解

【東京電話聯合】駐佛、駐英兩中國大使가 라발佛首相及 호어英外相에게 對하야 各各北中情勢에 關하야 北中自治運動은 日本에 關係가 잇는것가티 말하고 그 注意를 喚起하엿다는 報道에 對하야 日本外務省은 『右自治運動은 從來 屢屢聲明한바와가티 中國의 國內問題에 不過하므로 日本으로서는 何等關係가 업는것이明白하니 右와如한 中國使臣의動向은 何等介意할 必要업다』라는 見解를가지고잇다

郭大使提言에對해 英當局愼重檢討

【倫敦三日發聯合】中國大使郭泰祺氏의 重要提言에 對하야 호어外相은 九個國條約과 聯盟規約에 基하야 義務를 尊重하겟다는旨를 確言한데 끗첫스나 英國當局은 北中情勢를 嚴重監視하고 左의態度로慎重檢討를 加하고잇다고 解釋된다 郭大使는 九個國條約을 援用하야 日本政府의 行動을 非難하는데 끗치고 特히 九個國條約國會議開催를 要請하지는 안헛스나 當局側에서는此際에 九個國條約國會議를 招集하는것이 中國을 爲하야 가장 조호리라는 意見이 擡頭하게되엇다

旅順參謀長 天津에事務所設置

【天津四日發電通】北中時局의緊迫에 伴하야 日本海軍에서는天津海沽方面에 驅逐艦을 配置하엿는데 旅順要港部參謀長久保田大佐는 十二月六日 天津着 當分滯留中에 事務所를 設置하고 駐中陸軍其他와의 連絡을 緊密히하기로되엇다

黃郛氏 正式辭表提出

【上海三日發聯合】黃郛氏는 오래동안 內政部長就任을 拒否하고 現在에 及하엿는데 三日 行政院과 汪精衛氏에게 對하야 正式辭表를 提出하엿다

軍縮全權歡迎會

【倫敦三日發電通】三日午後日本人俱樂部에서 在留日本人主催下에 軍縮全權團歡迎宴이 開催되엇다 在留日本人百餘名出席 歡迎委員長伊藤三井物産支店長의歡迎辭와 永野全權의 謝辭가잇슨後 一同이 會食하면서 歡談하엿다

人事·集會

▲宇垣總督 御袴次家族同伴明五日午前十時五十分發列車로溫陽溫泉에向하야 一週間乃至十日間滯在豫定인데 滯在中에는 地方農村視察을 行할터이다
▲山本務氏(野砲兵第二十四聯隊長) 轉任人事次來社
▲富田直亮氏(陸軍大學校兵學敎官) 同上
▲後藤連平氏(朝鮮每日新聞社長) 腦出血로 今曉五時三十五分自宅에서 逝去 葬儀는 六日午後四時 仁川西本願寺에서執行

八面鋒

◇ 軍縮會議、正式開會도 되기前에 英國이 大艦巨砲主義를 放送。
◇ 地中海上의 風雲이 아모리濃厚하기로서니 너무도 面皮가 두거운일아닌가。
◇ 國民政府主席될번댁인 閻錫山君、이번에는 北中新機構의首班者로 物望에 올은다。
◇ 잇그러지기잘하는 八字이니 北中情勢如何로는 또다시 四川蟄居의 팔자나아닐가。
◇ 『마네와이드』가나고、油桐이나고 海苔가나고、全南地方의 新産業 竹筍가티 茂盛。
◇ 産業이 旺盛한은조호나 原産地에서 二錢하는『콜크』가 製品으로는 二圓한다니 기막히는노릇。
◇ 朝鮮사람이어、百分之一장사하는사람이 되지말고 百分之百장사하는 道理를 講究하라。

蕭駐佛代理大使 佛首相과會談
中國政府聯盟提訴?

【巴里三日發聯合】巴里駐箚中國大使蕭繼榮氏는 三日午後 佛國外務省에 라발首相을 訪問하고 會談을 遂하엿다 蕭代理大使는 北中刻下의 情勢에 言及하야 自治運動의 背後에 日本軍이 行動하고잇다는 旨를 說明하야 九個國條約에 基하야 佛國政府의 注意를 喚起하엿다고 解釋되나 蕭代理大使는 何等 公式文書를 提出치안코 單히 口頭로써 提議하는데 끗첫는데 外務省에서는 中國政府가 北中情勢에 對하야 聯盟理事會에 提訴할것으로 觀測된다

수단政廳도 制裁參加決定

【쥬네브三日發聯合】알골로에집트스단政府는 一日附로서 마친내 伊太利政府에 對한 制裁에 協力하기로 決定하고 伊太利政府及聯盟事務局에 右決定을 通告하엿다 수단政廳이 制裁案에 參加할 境遇 伊太利政府는 駱駝其他運搬用家畜의 輸入이 困難하게 되야 軍事上 大打擊을 밧게될것이다

商震氏保定서療養

【北平四日發電通】商震氏는 保定의 外人病院에서 事態가 수허 滋味업슴을 보고 辭表를提出하엿는데 中央으로부터 慰留하고 또何應欽氏의 北上으로 一旦病이快快되여 退院하엿는데 何氏가 北平에 赴하야 再次 病이라 稱하고 保定에서 療養할旨를 三日夜發表하엿다

ILA埠頭人夫 罷業全米에波及

【神戸電話聯合】三日 紐育으로부터 神戸三井物産船舶部入電에 依하면 I·L·A所屬 北米갈판 埠頭人夫의 罷業은 二日에 至하야 依然 全米에 波及되어關係船會社에 異常한 衝動을 與하엿다 卽 I·L·A에서는 二日夜半을 期하야 갈판의 스트라이키브레카인 非스톤勞働組合所屬人夫가 棉花의 積取를行하는 船會社의 船舶에 對해서는 直接間接의 關係를 不問하고 I·L·A의 敵對勢力下에잇는 太平洋岸과 大西洋岸에서 一切 荷役을 拒絶하게되엇다 이結果 日本船에서는 郵船、商船、三井、國際、川崎의 五社가 米棉의積取를 中止하지안는限 그所有者全部가 뽀이코트를 當하게되기 때문에 結局 棉業界에 非常한 打擊을 與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 國際汽船入電에 依하면 二日 商務省에서는 이 居中斡旋에 出馬햇는데解決은困難하다고한다

御命名의御儀
宮中大奧에서擧行

【東京電話電通】第二親王殿下께압서는 去二十八日御降誕하압신以來 御發育도 每우조호시고 四日은벌서御誕生御七日의佳辰을 迎하시엇슴으로 宮中大奧에서는 御慶事로우신 御命名의御儀를 擧行하시게되얏다 此日 天皇陛下께압서는 親히 御宸筆로써 御名을記하압신 御名記를 新皇子殿下께 賜하시다 이에 압서서 新皇子殿下의 文武의 御運長久를 祈하압시는 讀書의聲、懸鬼退散을 祈願하는 大弓의鳴弦은 大奧宮殿에 가득하야 瑞氣는 다시넘치어 全日本國民奉祝의 聲은 津津浦浦까지 가득하얏다

御命名御稱號
宮內省告示로發表

【東京至急電話電通】第二親王殿下 御誕生第七日의 佳辰에當하야 御命名御稱號를 御勅定하시와 左와如히 宮內省告示로써 發表되엿다
(宮內省告示第三〇號)
十一月二十八日午前七時五十七分 御誕生하압신 親王御名을 正仁이라고 命하압시고 義宮이라고稱하압시다
昭和十年十二月四日 宮內大臣 湯淺倉平

御浴湯의御儀

新皇子殿下의御前途를 御祝福하는 御浴湯의御儀는 御命名式의御儀에압서 午前九時부터 宮中大奧에서 古式에依하야 莊嚴하게 擧行되얏다

宮中三殿에 御奉告의儀

第二親王殿下의 御誕生과 御名、御稱號를 宮中三殿에 御奉告하는 御儀는 此日午前十時三十分부터 三條掌典長祭司下에 嚴肅히 擧行되얏다

皇統譜에御登載

御命名의 御儀諸事가 御終了되자 渡部圖書頭는 湯淺宮相과共히 皇統譜御所定欄에 親王殿下의 御名、御稱號、御生年月日時를 勅裁를經하야 御登載署名하엿다

三笠宮殿下 御披露宴第二日

【東京電話電通】四日正午 宮中에서는 豐明殿東間에서 三笠宮殿下 御成年式과 親王家御創立御披露宴을 비롯하섯는데 平沼樞府副議長、華頂侯、德川家達公、御命名式의 幅輳에 奉仕한 內山小二郎大將以下 文武官六百名을 召하사 天皇陛下出御 三笠宮殿下께서도 御臨席하사 一同에게 酒饌을 賜하시고 第一日의 御披露宴과 同樣으로 봉보니을 賜하시엇다

御降誕奉祝會 神宮에서擧行

第二皇子殿下의 御降誕을 祝壽하는 京城府主催 官民合同奉祝會는 御命名式當日인 四日 午前十一時부터 朝鮮神宮前 廣場에서 宇垣總督以下 其他 官民千數百名列席下에 爆竹을 信號로 開會、먼저 參齊者一同이 皇居를 遙拜한後 國歌合唱、다음에 伊達府尹이 奉祝辭를 奉讀、이어서 野宴에 移하야 宇垣總督의 發聲으로 兩陛下萬歲를 三唱하고 다음에 義宮正仁親王殿下의 萬歲를 三唱하야 午前十一時二十分 盛會裡에 散會하얏다 一方 府內 各學校에서는 午前中에 遙拜式을 行하고 初等學校의 代表로 上級生 三千六百名이 神宮에 參拜、午前一時二十分 神宮을 出發 旗行列로 京城神社、倭城臺、永樂町、黃金町鐘路通을 經하야 總督府前에 至하야 萬歲를 三唱하고 府廳前에서 散會하얏다

海軍軍縮會議와그前途
華府條約十九條 太平洋防備制限 (十七)
雲崗生

다음、本會議에서까지 問題가 될는지 모르나、設使、問題가 되지 안는다고할지라도、會議中 又는 會議後에 잇서서 日英米 三國間에 當然히 問題가 될 것으로 豫想되는 重要問題는 四國條約과 아울너서 太平洋 現狀維持條項이라는것이다。

太平洋現狀維持條項이라는 것은 華盛頓海軍條約 第十九條의 規定을 指稱하는것인데、그要旨를 簡單히 말하면 『日英米各國은 太平洋에 잇서서 現在、領有하고、又는 將來獲得할 領土及 屬地의 要塞及 海軍根據地에 關하야 華府條約調印時에 잇서서의 現狀을 維持하기를 約定함』이라는데 잇는데、그所謂 現狀維持라는것이 무엇을 意味하는 것이냐?하는것을 다시한번 敷衍해 말하면

一、本條約(華府海軍條約第十九條)으로 特定한 日英米各國의 領土及屬地에서 새로 要塞 又는 海軍根據地를 建設치아니할事、
二、右領土及屬地에서 海軍力의 修理及維持를 口實로하야 現存海軍諸設備를 增大하는 處置를 取치 아니할事、
三、並히 右揭領土及屬地의 沿岸防禦를 增大치 아니할事、

等等、세가지를 意味한것인데、이것을 太平洋現狀維持條項이라고도 하고、또는 太平洋防備制限規定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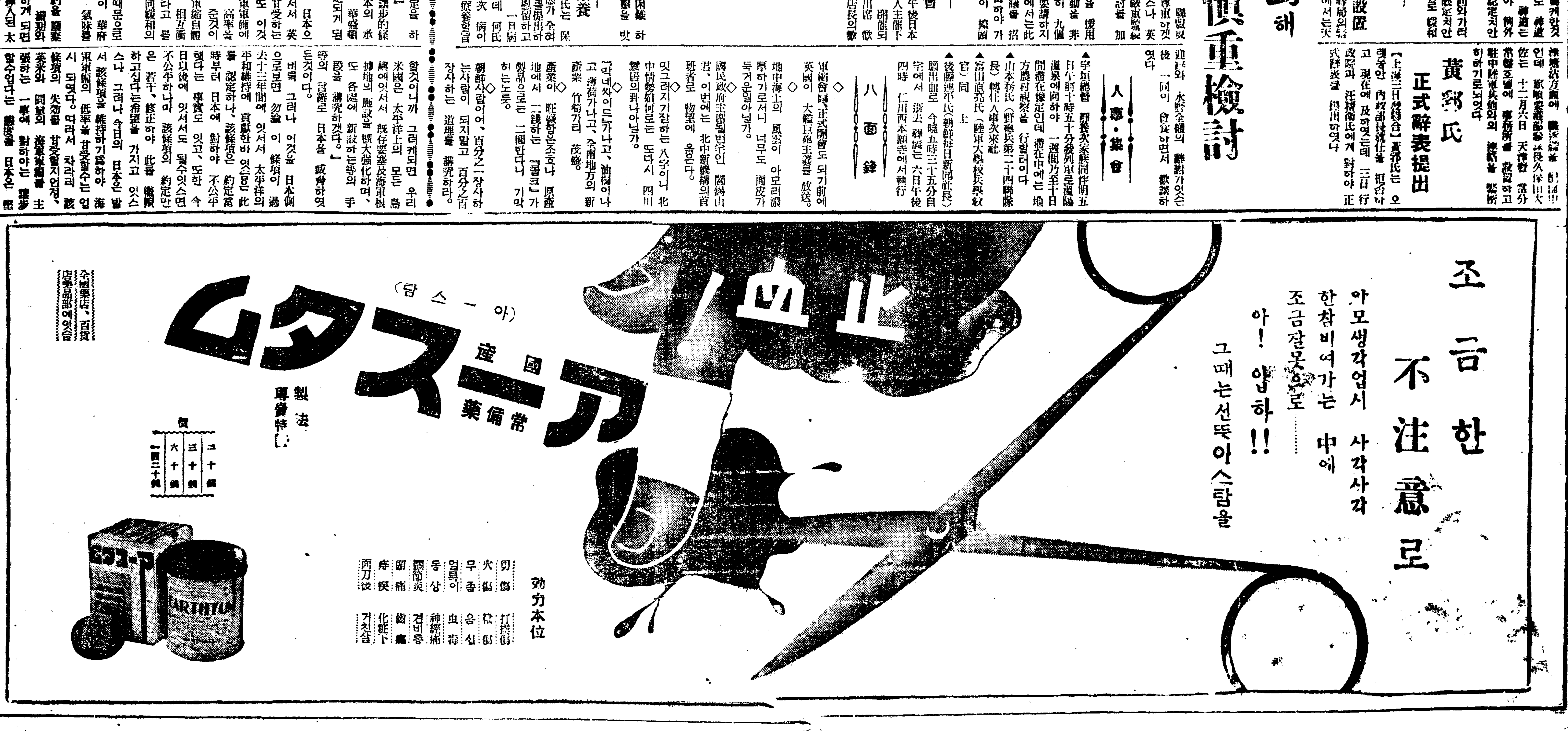
그러면 華盛頓海軍條約에 잇서서 그第十九條로 太平洋防備制限規定을 挿入할 必要는 무슨때문으로 잇섯느냐하면 그것은 英米兩國이 日本으로 하여금 英米各五에 對한 日本三이라는 低率을 가지게 하는 代償의 意味로 約定한것이다。

다시 한번 이것을 敷衍해 말하면 華盛頓會議當時에 日本은 『英米가 太平洋 特히 日本에 가까운 西太平洋上에 領有한 領土及屬地에다가 要塞及海軍根據地의 施設을 益益擴大强化하는 現狀에 잇서가지고는 日本은 그脅威를 考慮하게 됨으로 到底히 低率의 海軍으로 安心할수 업다。』라는것을 强硬히 主張하야 讓步치아니하므로、이에對하야 英米兩國은 할수업시 『萬若、그러타면 한 方法이잇다。우리(日英米)가 太平洋에 잇서서 領有한 領土及屬地에 이미 施設해 노흔 要塞及海軍根據地를 撤去할수는 업고、또한 撤去할 必要도 업스니까、撤去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施設을 現在以上 擴大强化치아니한다는 約定을 하면 될것이 아니냐?』라 하야 日本에 對하야 讓步的條件을 提出하엿는바 日本의 承諾을 어더서 이條項이 華盛頓海軍條約第十九條로 規定되게 된것이다。

그러니까、이 條項은 日本으로보면 海軍軍備에 잇서서 英米에 比하야 低率을 甘受하는 代償으로 바든것이오、또 이것을 英米側으로보면 海軍軍備에 잇서서 日本에 比하야 高率을 가지는 代償으로 日本에 준것이오、또한 이것을 海軍縮自體로보면 日英米三國間의 相互衝突의 危險이 第一 만타고 볼 太平洋上에서의 衝突傾向緩和의 效果를 내는것이다。

이러한 事情이 잇기때문으로 昨年末에 잇서서 日本이 華府條約을 廢棄하고저하는 氣味를 보이자、米國은 日本이 萬若 華府條約을 廢棄하는結果로 同條約이 滿期와 同時에 效力이 消滅하게 되면 該條約의 一項으로 挿入된 太平洋防備制限規定도 가치 失效할것이니까 그러케되면 우리 米國은 太平洋上의 모든 島嶼에잇서서 旣存要塞及海軍根據地의 施設을 擴大强化하며、또 各處에 新設하는等의 手段을 講究하겟다。』 日本을 威脅하엿든것이다。

비록 그러나 이것을 日本側으로보면 勿論 이 條項이 過去十三年間에 잇서서 太平洋의 平和維持에 貢獻한바 잇슴은 此를 認定하나、該條項은 約定當時부터 日本에 對하야 不公平햇다는 事實도 잇고、또한 今日以後에 잇서서도 될수잇스면 不公平하나마 該條項의 約定만은 若干、修正하야 此를 繼續하고십다는希望을 가지고 잇스스나 그러나 今日의 日本은 발서 該條項을 維持하기爲하야 海軍軍備의 低率을 甘受할수는 업시 되엿다。따라서 차라리 該條項의 失效를 甘受할지언정、英米와 同量의 海軍軍備를 主張하는 一事에 對하야는 讓步할수업다는 態度를 日本은 堅持하고잇다。(繼續)



飢寒에 直面한 冷害民 咸南에 十萬餘名

迅速한 救濟費八十萬圓必要

內務部長이 上京交涉

함경남도 신흥(新興) 삼수(三水) 갑산(甲山) 단천(端川) 일대의 지방은 금번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냉해(冷害)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막심하야 그리재민은 실로 이만여호에 십만여명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엄동을 아페두고 모다 긴급한 구제를 요하는 중에 직면하고 잇는형편이여서 함남도당국에서는 그구제책을 총독부와 협의하기 위하야 좌좌목(佐佐木) 내무부장이 상경하야 총독부에 출두해서 사회과와 내무국 토목과와 재무국 사계과(司計課) 당로자와 절충중이다 좌좌목 내무부장이 제시한 구제책의 내용은 구제비로서 약팔십만원을 예상하고 그 약반부를 국고(國庫)에서 보조를 바들려는 것이라고한다 토목과에서는 원년 리재의 범위와 정도도 넓고 심각한 까닭에 즉당은 주저하고 더욱실상을 조사한후 보조를할려라는데 여하간 신속히 결정해서 오는 의회에 추가예산으로서 제출하도록 사정을 급히하리라한다

要求를 主張騷亂

權泰山等엔 退廷命令

十四名中十二名만 秘密裡審理

間共控訴審第二日

사건별로 분리된 주현갑(周現甲) 리동선(李東鮮) 권태산(權泰山) 등 연네명의 간도공산당 공소공판의 제이일은 예정한대로 사일 오전열시반 피고 일동이 형무소자동차로 열여들명 간수의 호위와 서대문경찰서 정사복경관의 합세한 경계속에서 출정하야 기다리지 삼십분인 동 열한시 적(狄)재판장 당입 향천(香川)검사립회하에 개정되엇다 리동선으로부터 사실심리를 개시하려하자 그는 어제 권태산(權泰山)이가 요구한 요구조건을 드려주지아니하면 심리를 밧지아니하겟다고 심리를 거절하엿다 그래서 주현갑(周現甲)의 심리를 개시하려고 하는데 권태산(權泰山)이 이러서서 작일에 하든대로 『피고회의』『분리심리반대』등 열일곱가지 요구조건을 요구하자 원용학(元容學)이 그에 응하야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이르킴으로 재판장은 권태산 원용학 두명에게 퇴정을 명하엿다 이에 대하야 피고 일동은 『퇴정절대반대』를 부르짓고 계속하야 『중국공산당』운운의 소래를 웨치며 떠드는것을 경계하는 간수와 서대문서원이 권태산 원용학 두명을 법정밧그로 끌어내다 그리하야 원용학은 재판소 유치장에 권태산은 림시로 엽페방인 제삼예심정에 데려다두엇다가 다시 재판소류치장으로 옴기엇는데 권태산은 여전히 『중국공산당』운운의 소래를 질르고잇섯다 그리고나서 동 열한시반부터 주현갑의 심리를 계속하다가 열두시 사십분 일단 휴정을 하고 오후에 계속개정하기로 하엿는데 당일출정피고는 다음과가다

◇出廷被告◇

▲元容學 ▲許玩珍 ▲高洞應 ▲金應洙 ▲車東喆 ▲盧昌浩 ▲周現甲 ▲朴默燮 ▲金光默 ▲權泰山 ▲金東鶴 ▲池養浩 ▲劉泰順 ▲李東朝

周現甲만 審理

간도공산당사건 공소심리는 사일오후 오십분까지 주현갑(周現甲) 한명만긋내고 폐정하엿다

新義州檄文犯送局

【新義州支局電話】 지난구월이십일일 의주군읍내 서부동(義州郡邑內西部洞) 리정환(李正煥)을 데려다가 준엄한 취조를 계속

神社參拜不可避라고 學務當局依然强硬

宗敎宣布와 敎育政策은 別個問題라고

解決點發見키는 困難

긔독교계통학교와 신사참배문제에 대하야는 선교사측에서는 어디까지든지 참배를 거절하고 학무당국은 참배를 강경히 요구하고잇서 문제의 추이(推移)는 매우 주목되든바 흥은 일부에서 전한바가티 신사참배는 하지안터라도 교내에서 식만거행하라고 학무국에서 통첩하야 이문제가 해결되는듯이 전한바도잇스나 이것은 전연 오전(誤傳)으로 학무국에서는 이번 황자어명명식(御命名式)에 대하야 각도에 대하야 봉축식에 대한 지시는 별반하지 안헛스나 각기적당히 경의를 표하라는 통첩을하는 동시에 직접 감독하고 잇는 전문학교에도 이와가튼 의미의 통첩을 하엿슬뿐으로 일반적으로 신사참배는 안하에도 조코 교내에서 식만 거행하여도 무방하다는 통첩은 한일이 업다한다 그리고 학무당국자의 언명에 의하면 이번 황자어명명식에는 봉축식이나 할것이지 신사참배를 할 필요는 업스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학교든지 신사참배가 필요할 때에는 반듯이 참배를 하여야한다 하며 또 종교와 교육과는 다르니 종교의 선포(宣布)는 자유이지만 종교때문에 교육정책을 고칠수는 업다는 의견으로 이문제에 대한 학무당국의 의향은 의연히강경하야 앞으로도 선교사단측과 상당히분규를 이르킬것으로 보인다

緩和云云은 誤傳

方針不變이라고 學務當局談

전긔와가티 학무국에서는 긔독교계통학교의 신사참배는 안하야도 조코 식만거행하라고 명령한듯이 일부에서 전하는바에대하야 학무국종교과(宗敎課)사관은 다음과가티말하엿다

『그런일은 전연업소 학무국에서는 이번황자어명명식에 대하야 각도와 각전문학교에대하야 특별히 봉축식이니 무어니지시는안지만 적당히 경의를 표하라고한바는잇소 그러나 신사참배요구문제는 조금도 변함이업소 종교와 교육과는다르다 아모런종교단체에서 경영하는 학교라도 신사참배는 하여야 될것이요 그것은 학교당국에서는 이번에 학무국에서 통첩한것을 오해한듯하오 신사참배에대한 학무국의주장과 명령에는 조금도 변개된것이업소 종교의 선포의자유는인정하나 교육과 종교를 혼동할수는업소』

爆藥의 爆發로 五名이 死傷

勞働者一名은 即死

【大邱支局電話】 삼일오전이십분경에 경북봉화군춘양면 우구치리(奉化郡春陽面牛口峙里)에잇는 태전(太田)소유의 금정(金井)광산구내 제오호의중간에 폭약을메꾸되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야 그곳에서일하고잇던 로동자오장수(吳長壽)(二三)는 즉사하고 중상자세명과 경상자한명을 내엇다 그원인은 전긔폭약이 불구멍에 그대로남어잇는것을 검사가불충분한까닭으로 광부들도 이를 아지못하고 탄평안에서 그대로 작업을 하고잇던중 여창에 접촉되여 폭발한것이라는바 경북 경찰부보안과에서는 이를 엄중 조사중이라고 한다

輕爆擊機空中衝突墜落

【所澤電話聯合】 소택 륙군비행학교(陸軍飛行學校)제오십사기조종학생 조교수 축지(築地)토무조장은 삼일 오전열시십분 장폭격기 륙십일호에 학생천정(淺井)조장을 태워가지고 리륙하야 상내미(上內尾)의 공중에 올라갓슬때 학생 중정(中井)군조가 경폭격기 오십일호를 단독조종하야 회전비행을하는 전기 장폭격기의허리를 치비며 두비행기는 그대로 경절러 가지고 비행장밧 부강촌(富岡村)의 밧가운데 추락하야 세명이다 참사하엿다

크機미드웨島로

【웨크島四日發聯通】 『크립퍼』긔는 사일오전 일곱시십오분(경성시간 오전네시사십오분)『웨크』섬을떠나 『미드웨』섬으로 향하엿다

海州의 中國人도 排日敎材使用?

華僑學校의 敎員等數名을 引致

全朝鮮的으로 調査中

황해도해주(海州)에서도 중국인 소학교에서 배일(排日)적교육을 실시하고 잇다는것을 황해도경찰부에서 탐지하고 삼일에교원 기타관계자 수명을 인치하고 엄중취조를하고 잇다는데 그내용에대해서는 아직 발표치아니하나 내용은 신의주(新義州)사건과갓다 한다 경무국에서는 본래이번신의주사건이 이러나자 각도에명하야 중국인소학교의 교육내용에대한 내사를명하엿든바 이번 이러슴으로 경무국에서는 불원에 금후각지의 중국인 소학교의교육내용을 엄밀탐사하야 배일교육의 취체를 엄중히할이라한다

昨年中水魔의 被害

土木關係一千四百萬圓

慶南北兩道가 最多

락동강(洛東江)의 범람을 비롯하야 작년중 반도를 엄습한수재로 말미암은 피해에 관하야 그간 총독부 내무국(內務局)에서 토목관계중심으로 전반적 조사를 진행중이든바 요사이전부 조사가끗낫는데 그피해총액은 일천사백만일천팔백팔십팔원으로 그중 국비(國費)로 유지되는것이 삼백구십사만원(삼할오분칠리)도비(道費)로유지되는것이사백이십삼만오천원(삼할분사리) 부읍면비(府邑面費)로유지되는것이 이백팔십륙만칠천원(이할오분구리)이다 이것을 과왕의피해액과 비교하면 대정십년이래 일천칠백만원 소화원년의일천삼백만원 동오년의 일천이백만원에 다음가는것으로 대정십년이래 소화구년까지의 손해는 실로 일억삼천구백만원이나된다 각도별의 피해액은 경북(慶北)의 사백칠십구만사천원이 제일만허 종액의 사할삼분사리에 해당하며 경남(慶南)이백구십사만일천원 충북(忠北)일백일만오천원이 그다음되며 평남북(平南北)이 각각오십만원 충남(忠南) 전남(全南)이 각사십만원 전북(全北)이 이십만원 기타가 십만원가량이다

닭盜賊格鬪逮捕

사일새벽두시 동대문서원이 사외왕십리(往十里)역압흘 순찰할때 마츰 행당리(杏堂洞)사백칠번지에서 양계업(養鷄業)을하는 장야일랑(長野一郞)이 괴한한사람과 격투를하고 잇는것을발견하고 그는 효자동(孝子洞)오십륙번지최춘삼(崔春三)(三九)으로 지난십일월 이십칠일에 장야의 집에서 『레구홍』이란 닭륙십머리를 훔처가고 이날밤에 또다시 수물두머리를 훔처가지고 다라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야 격투하고 잇든것이라한다

客月氣候는 웨따뜻햇던가

仁川觀測所의發表

가을부터 날세가 퍽시따뜻하야 시월에는 전조선적으로 전례에 드물만큼 고온(高溫)이 계속되엿이 만흔데 이상태가 십일월까지 계속하야 평년으로 평년보다 일도내외식고온이 놉흘뿐만 아니라 전조선적으로 비오는날이 만코 우량이 만하서 대개는 중에 첫눈이 다오는데 금번에는 지금까지 첫눈이 온곳이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네도만으로 중부조선이남은 아즉 첫눈이 오지안헛다 이지적원인은 대륙고긔압의 동쪽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례년에비교하야 북쪽으로 치우친관계이다 주마주를지나 연해주(沿海州)방면으로 향한일이 만흠으로 조선은항상 고긔압이 미급치못함을 딸아 중국방면에서 저긔압이 자조 조선을 차저와서 비를오게한것이다

四名强盜團이 長湍에 出現

行人을襲擊十圓을强奪

警察은各地로搜査

지난일일밤 아홉시 경긔도장단군 대강면포춘리(長湍郡大江面浦春里) 사십이번지 마차군 리로마(李老馬)(三六)가 고랑포(高浪浦)까지 벼를실고 갓다가 도라오는길에 포춘리 송곡동(松谷洞) 압길에 이르럿슬때에 어슥한곳으로부터 별안간 괴한네명이뛰어나와 한사람은 전긔리로마의 손을 잔뜩붓잡고 세사람은 그의머리와 몸을 함부로 때리여 인사불성이되게한후 그의주머니에 드른십원지폐한장을 빼서갓다는 보고를바든 소관장단경찰서에서는 곳 린근경찰서에 수배하는한편 비상선을 펴고 범인을 엄탐중이라한다

坡州의 山賊은 헛告發로 判明

驪州의路上强盜도헛告發

兩名을拘留에處分

거짓으로 강도마젓다고 고발하엿다가 탄로되여 류치장사리를하는 두사람이잇다 지난삼십일오후일곱시에 경긔도 파주군광탄면 룡미리(坡州郡廣灘面龍尾里)리로마(李老馬)가 장곡리(獐谷里)산길에서 어떤괴한에게 돈구십원을 강탈당하엿다는 보고를바든 파주경찰서에서는 곳린근각경찰서에 수배하며 범인을 수색하든중 피해자의 말에이상한점이 잇슴으로 그를추궁조사한결과 그는다른사람에게서 마튼돈구십원을 술과계집에 모다 써버리고 핑게댈궁리를 하다가필경강탈당하엿다고 거짓고발한것이 탄로되야 그는톡톡히 꾸중을 드른후 류치장신세를 지게되엿다하며 또경긔도려주군 주내면 견곡리(驪州郡州內面甕谷里)이백구십륙번지 방물장사 함씨(咸氏)(四二)는 지난이십팔일오후네시에 그곳연양리(淵陽里)산능성이에서 삼십세가량되여보이는 자에게 쌀여섯되와 현금팔원가을 강탈당하엿다는보고를바든려주경찰서에서는 곳비상선을느러고 범인을 수색하든중 전긔함씨가 물건이 잘팔리지 아니하야 여러날 장사하엿스나 별로팔니지안허 사가지고 들어갈것을 걱정하다가 거짓강도고발을 한것이 탄로되야 그역사흘간 류치장사리를 하게되엿다한다

百貨店專門竊盜

삼일오후다섯시 시내 황금정이정목어는전당포(典當舖)에 어떤사람하나가 차저와 비단다섯필을 전당잡어달나고 하는것을 수상히역여 본정서에 고발하여왓슴으로 본정서원이 그를붓들어 취조한결과 그는 려주(驪州)출생으로 일즉부터 정처업시 도라단이든 리원달(李元達)(二六)로 화신(和信) 정자옥(丁字屋) 삼월(三越)등 백화점으로 도라단이며 비단의복감을 절도로 훔친것이라한다

天氣豫報

晴 曇

氣象槪況 高氣壓은 中國黃河揚子江間부터 朝鮮으로펴지고잇다 日本、本州方面은氣壓이점점내리고 西朝鮮灣에는弱한 低氣壓이잇다 滿洲와北朝鮮及東岸은맑고 中部以南과西岸은흐리고 日本本州는日氣가조흐나 東北地方以西는흐리다

豫報 ▲今夜京城地方은 흐리고 눈이조금내릴듯하며 全鮮區域도갓다 ▲明日 京城地方、맑엇다흐렷다하고 全鮮區域도갓다

昨日 最高 三度〇 最低 零下五度六

今日 正午 一度一

運動競技

世界올림픽蹴球에 朝鮮選手를銓衡

만흐면五名까지選拔할듯

注目끄는選拔委員會

아式蹴球는 一九〇八年부터 世界올림픽競技種目에 參與햇는데 一九二八年 國際아式蹴球聯盟과 世界올림픽委員會와의 아마튜어資格問題에關한 意見對立으로 兩者가 衝突하야 드듸여 一九三二年『로스안젤스』에서열린 第十回世界올림픽大會에는 아式蹴球를 中止하엿든것이다 그러나 一九三四年에 羅馬에서열린 同聯盟會議에서 奮然히이러나 全員一致로 聯盟의 올림픽大會參加를 決議하엿다 이리하야 各國올림픽委員會는 明年六月二十日까지 그 參加與否를 通知하되 各選手의 姓名은 七月十八日까지申請하기로 되엿다 그러나 參加國이 十六팀以上일때에는 正式競技開始前에 豫選을 獨逸의各都市에서 行하기로되엿다 競技를 順調로 進行케하기위하야 專門委員會는 明年六月三十日까지 參加各國을 二班에 依하야 二部로나노아 最强팀을 包含한第一部는 豫選에出場치안코 正式競技에만 出場하게되엿고 第二部에 屬하는 팀은第一部와의正式競技에 參加하려면 早期豫選에서 決定될터인데 其對陣은抽籤에 依하기로 되엿다 第一部 即 十六팀以下가 出場하는 正式競技는 明年八月三日부터 十五日까지 伯林蹴球場 또는 올림픽競技場에서 열릴터인데 그때의 競技方法은 參加팀을 其强弱을 分別하야 同數의 二組로 나노아 가지고 抽籤으로 第一組의 어느팀이 第二組의 어느팀과 對戰한다는것을 決定하고 第二回戰及第三回戰의 對戰도 亦是 以上의 方法으로 決定하고 萬若參加國이 十六팀以下인 때에는 專門委員會에서 別로히 方法을 講究하기로되엿다 以上으로서 올림픽蹴球에 對한規定을略記하고 이번에올림픽參加하는 日本에서는 이에出場할代表팀을選拔코저 周知하다시피春期와 秋期에 二次의 豫選戰을 行하엿는데 兩次를거듭하야 朝鮮팀(京城)이 破竹之勢로 優勝하니 事實上 朝鮮팀이代表로 世界올림픽에 出場치안코는 아니될形便이다 그러나 올림픽代表選拔委員會는 兩次의 豫選이열리기前에 그豫選의 成績을 詮衡資料로삼고 關東、關西의 리ー그戰과 東西對抗戰도 詮衡資料에 너허서 選拔한다는것을 前提로 하야왓스며 지난神宮蹴球의 戰評을 보드래도 一齊히 朝鮮選手의 個人技術은 好評이엇도엇섯스나 팀으로서의 訓練이不足하다는것을論하고 朝鮮選手는말하자면 連二次豫選에 優勝은하엿스나 代表로서世界올림픽에 出場시킬수업다는것을 暗示하엿다 그러나 其後各方의 異論이 紛紛하여젓는데 最近올림픽代表選拔委員會를압두고 지난豫選戰에 出場하엿든 選手中에서 學生選手四名과 其外一名에對한(姓名은秘密)身元調査를 某方面人士에게 依賴하야왓다 이로써미루어보면 五名까지는 朝鮮選手를選拔할모양이다

그럼으로 來十二月下旬에 열리는 올림픽代表選拔委員會의 結果가 蹴球人의注目을이끌고잇다

올림픽大會에 女子體操를追加

來年夏期에 伯林에서열릴 第十一回올림픽大會에 새로히 女子體操團體競技가 追加키로 되엿는데 長一米二〇 幅八미리 高一米二〇의 平均梁上에서 十八種目의體操를 行하야 各選手의得點總計에딸아 優勝을 決定한다는바 其外에도 團體競技가잇서 一致團結의 共同動作에 依하야 採點케되엿다한다

中等럭비總評 (3)

普專럭비監督 李鍾琬

이께임에잇서 培材로서 큰敗因은 FW의無力으로TB의 攻擊의 機會가적엇든것과 後半을利點 노이제는첫고나?하는精神的으로 緊張味를잃케되는反面에 京商의 猛烈한鬪志의 奮闘를當하고만것이다 좀더FW의 頑强한 體格을 利用하야『힐』과『드리블』戰으로 全力을다ー하야 京商의『세이빙』의機會를주지안코 最後까지力戰하엿드면 께임을逆轉하엿슬는지도몰낫다 培材로서는 다시업는 악가운機會를 노치고마릇것이다 이大會의 初登場인 國境의雄! 新義州高普는 對京商과 培材戰에잇서 지난神宮競技에 養正에게 十二對八로 接戰끗헤 惜敗하야 新高로서는여기에 自信을엇게되여 中央에再出戰하엿스나 팀全體로보아別로技術的으로 進步된點이업다 다ー만爽國의氷岩우에 白熊과가티 僳悍! 그것의熊勢만이엿다 아즉 팀으로서 未完成이다 이팀은 現在의팀이라는것보담 將來의팀이다 좀더 敢戰的으로試合의 經驗이 만히잇기를바란다 京商에게 四十一對八이라는『스코어』는 當然한 敗이지만는 試驗의差이 만타는것을 크게注意하여야 할일이다

落着못되고 끌어가는 峴底公普基地

府에서는弘濟內里로內定

敎育部會에선不應

신입학기도 닥아오는데 실현의 한거름아페서 기지문제로 난항을 하고잇는 현저공립보통학교(峴底公普)의 기지는 그동안형무소와의 사이의 절충이원만하지못해서 경성부학무과에서는필경 형무소소유지에 세우는것을 단념하고 총독부 산림과(山林課)에 교섭하야 홍제외리(弘濟外里)의 국유지를 후보지로정하엿다고한다 이에 제이교육부회(第二敎育部會)에서는 삼일오후에 이문제를론하기위해서 부청안에서 회의를열고위원일행이 홍제외리 현지에 나가서 실지까지 시찰한결과 교통그바게 여려가지점으로 불편하므로 다시 토의한결과 아모래도 문제의 형무소소유토지가 가장 적당한 기지라고해서 그곳을 획득하도록 최후로 총독부에 진정해서 실현을 도모하리라한다

그런데 형무소소유지를 어드려면 홍제내리(弘濟內里)의 북촌모(北村某)의 소유지 삼백평을 대신사서 주어야 할터인데 이것을 미리안 북촌모는 땅갑슬 엄청나게 청구해서 부의재정으로 허락지 아니하야 원래 이문제가 도좌된것인데 총독부에서 과연 어떠한 재단을 나릴지는 서대문일대의 주민에게 큰영향이 잇슬것이다

리ー진지오네 ネオチリン 림질

可恐할害毒을流布하는淋疾 … 京城本町四ノ二六 株式會社 木村藥房 兵庫縣細川 株式會社 山本製藥所 全國藥店百貨店에잇슴

趙膏藥

어지간한종긔는말할것도업지마는·밤찌·유종·등창·둔종
갓흔어려운종긔라도 반다시고됴약이라야 치료가됩니다
잇지마시고됴약으로치료하십시요……

全國各地有名藥品店雜貨店에서販賣하옵

藥價 五十錢 二十錢

發賣元 天一藥房 京城府西小門町

恩給 長期低廉立替 他에比較함업는最有利 信用은絶對秘密 特色照會에回答 京城府授恩洞一六〇 鄭商會

朝報案內

木材床板 落葉松마루널 라완개량진것 屋根板用落葉松三分五厘板其他各種廉價販賣 京城鍾路五丁目(電光五四九) 建築材家具材 大野材木店

毛皮 防寒帽 國際洋行 帽子商店卸賣價提供

말더듬이 重難한訥言도全治함 矯正案內書無料送呈 京城府梨花洞二〇四ノ三 訥言專門矯正院

新發賣 鋼鐵製捕獸器 農村副業의絶對有利

全世界狩獵家大賞讚品! 本器로人命과家畜을確保하시고 獲得物에多大한收入을確實히할것이다 狩獵期는只今! 獵場의偵察! 捕獸器의準備!!

使用便利 趣味百點 捕獲完全 耐久强大 費用全無 收益多大

兎·鼬用 片バネ 小 一圓八十錢
狐·狸用 片バネ 中 二圓二十錢
獺用 兩バネ 大 三圓二十錢
猪·獐用 兩バネ 大大 三圓八十錢
猛獸用 兩バネ 極大 四圓五十錢

地方代金引換、地方販賣店大歡迎、先金注文送料自擔 最新捕獸器販賣元 天蔘毛皮高價買入 京城需昌洞一六 需昌商店 電光(3)一〇八一

미스 리ー갈ー이는 果然누구일가? 流行歌 우러도우러도 故鄕아잘잇거라 콜럼비아大衆盤 一枚八十錢 C-298

學生募集 技術者에 失職업다 個月間責任養成 畢業後開業就職紹介 學習하라 時計技術을 規則書、要二錢切手添付申込次第送呈 新義州若竹町十一 玉屋時計師養成所

印入タオル

▲タオル一打重壹百十八匁品 長二尺五寸巾一尺一寸 十打印入並 拾貳圓也
▲タオル一打重壹百六十匁品 長二尺七寸巾一尺二寸 十打印入並 拾五圓也
▲タオル一打重百九十匁品 長二尺八寸巾一尺二寸 十打印入並 拾八圓也

但中央의マク를要할時는型代를要함 其他는送料를要하오며 注文時는三割以上의前金을要함

京城府長沙洞八五 東洋染織捺染部 電話光一三二八・振替京城二〇六四八

貴人愛好 銘酒 君臣是愛 自德威輝 白鷹 ハクタカ 年末年始의 贈答品에 擇하라白鷹

發賣元 辻本商店 京城南大門市場 電話本(2)〇〇七五 〇六四一 一七七五

든든히 하시요

요새흔한 좀도적 마음단속 문단속

집지키는개두엇다고 밋지말일 피해는결국부주의한탓

년말이 가까우면 의례히 좀스도적이 성하게 됩니다。벌써부터 시내 더구나 시외에서는 이것 저것 잃어버리고 분해하며 아까워 하는분이 드물지 안한듯합니다。그런데 물론자사 남의것을 훔치어간 그 도적놈이 고약하다고 보겟지오만은 잃어 버린 그 당자에게도 어느정도까지 불찰이 업지 안습니다。만일에 모든것을 튼튼히 하고 모든것을 주의하시는 이엇더라면 그처럼 허무하게 도적을 마지시지는 안 햇스리라고 생각입니다。속담에도 아르키를 매사는 물여튼튼이라고 말합니다。도적을 맛고나서 분해하고 아까워하는이보담은 애당초 튼튼히하야 안마짐 도리를 하는이만 갓지못합니다。

첫재는 문단속을 단단히 하서야 합니다。혹히 걸고리를헐겁 해두거나 배목을 허술하게 해두니까 도적이 제집들어 오듯 쉽사리 들어 섭니다。설사 사랑랑반 늣게 돌아오시더라도 문만 꽉 잠거 두어야합니다。다뎟다가 열어 드리기가 귀찬타고 딱열어노흐니

그야말로도적을

초대하시는 격에 지나지 안습니다。

둘재로는 담과판장단속도 단단히 하서야 합니다。한길로못되는 담 더구나 섞어가는 판장쫌은 집안을 가리어 잇슬뿐이지 결코 도적까지를 막아내지못 합니다。그뿐더러 담이나 판장미테다가 쓸에기통과가튼것을노화두시는 분이 만습니다만은그것은 아조 찬성할 수 업는일입니다。도적이 넘어 오기 거북할까버서

일부러노하두

는 것이 아닌이상 도적에게 그,런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자긔혼자 어리석은 사람으로 돌아 가고 맙니다。

×

셋재로는 안을 검검하게 하야 도적으로하야금 그 안을 잘 드려다가 보지 못 하도록 해두시는 것이 조치 안 할까 합니다。그러케 해야만 집안사람들이 자는지 안 자는지도모르고 또 어듸서 무엇을 훔칠지도 몰라서 선뜻 들어 올엄두를내지 못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넷재로는귀중품

이라든지 현금을 허술하게 굴리지말고 장속에 넛는동시 장문도 단단히 걸어 두는 것이 조치 안 할까 합니다。그래야만 도적이 들어 왓다 치더라도 손쉽게 뒤저서 훌 몰아가지고 달아 나지는 못 할 것이아닙니까?

다섯재로는 나제라도 집을비고 다니면 도적이 들 것이라 한만한 나드리가 부지런습니다 나드리를 떠나시거든 집을 단단히 잡그고 또이웃사람에게라도 단단히

부탁해두거나

그러치 안하면 똑똑한 사람을 한두사람 집에 두어 집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여섯재로 개를 두신 댁에서는 아조 도적지킴으로 개를하늘가치 미더 마음을 턱노흐시지만은 개는 구경 한개의동물로써 절대적으로 신용할것은못됩니다 과자나불앵이로 그개를 회유할수도 잇고 동무개를 다리고가서 유인할수도 잇고종잔페가 잇는도적이라면 개하나쯤 어떠케 할 도리가 업슬리는업습니다。

十二月六日밤七時 東洋劇場에서

野談大會

朝鮮日報讀者優待券

優待料金	『上階』	大人七十錢을五十錢 小人六十錢을四十錢
	『下階』	大人五十錢을三十錢 小人四十錢을二十錢

一人에 一枚限

四日 (水曜)

◇午後六時奉祝唱歌 一、君が代 二、可愛い皇子さま 三、愛國の歌 四、旭日旗の光よ永久に鮮麗なれ 水下洞公普兒童 伴奏 李樂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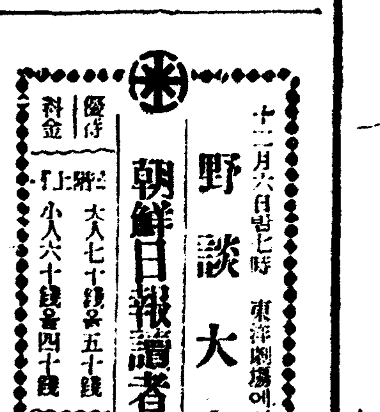
◇同六時二五分 講話 十二月에낫偉人이야기 徐元出

◇同七時三〇分 奉祝講話 親王殿下御誕生을奉祝하야 李王職禮式課長 李謙果 國民協會理事長 金明濬

◇同八時 雅樂 一、寶鼎朝(樂統)(樂器) 玄琴 伽倻琴 洋琴 大笒 螺角 杖鼓 二、長春不老之曲(合樂)(樂器) 編鐘 編磬 唐笛 大笒 奚琴 唐笛 牙箏 杖鼓 座鼓 拍搢 雅樂師長 咸和鎭 —李王職雅樂部演奏所로부터中繼— 李王職雅樂部員

◇同八時三〇分 歌詞 一、白鷗詞 二、漁夫詞 安鶴仙 大笒 金桂香 金永根

◇同九時 室內樂 一、플루ー트 바이오린과피아노를爲한三重奏曲…헨델作曲 二、쌀드는봄…빠하作曲 三、오보이와피아노를爲한로ー만스 슈ー망作曲 四、플르ー트와오보이 바이올린 피아노 R·H·블라이스 T·F·홋스 T·B·스투데니



五日 (木曜)

◇午後〇時五分 映畵이야기 徐相弼

◇同三時一五分 常識講座 (四) 鞠埰表

◇同六時 라듸오世界一週(修學旅行) 풀ー렌드 (二) 金道泰

◇同六時二五分 講話 哲學과慣用法 李鍾雨

◇同七時三〇分 奉祝講演 (第一日) 親王殿下御誕生奉祝 總督府事務官 金大羽

◇同八時 歌曲 一、羽調初數大葉 二、羽調頭擧 三、半葉 四、編 唐絲桃 金鳳仙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字

◇同八時三〇分 時調外 一、詩調 二、男唱지름 三、遊山歌 四、船遊歌 五、제비가 趙牧丹 李竹葉

◇同九時 (東)管絃樂 新交響樂團

六日 (金曜)

◇午後〇時五分 關山戎馬外 一、關山戎馬 二、평수심가 三、역금수심가 四、공명가 五、방아타령 六、양산도 崔貞子 吳飛燕

◇同三時一五分 家庭時間 兒童과環境 趙圻烘

◇同六時 (東) 管絃樂 親王殿下御誕生奉祝放送第三日 一、작난감의交響曲…하이든作曲 二、金과銀…데하ー르作曲 三、國民의깃붐…스ー자作曲 東京라듸오・오케스트라

◇同六時二五分 講演 暴風警報改正에對하야 趙永根

◇同七時三〇分 奉祝講演 (AK) 總理大臣 岡田啓介

◇同八時 民謠와演談—東洋劇場으로부터中繼— 一、流行歌(가)哀想의썰매 (나)故鄕의處女들 崔南鏞 二、演談 感孝代命 玄哲 三、新民謠 (가)落花三千 (나)콧노래 盧碧花

◇同九時 音律 靈山會像 朝鮮正樂傳習所會員

野談同好會 主催
朝鮮日報社學藝部 後援

◇十二月六日밤 七時 東洋劇場에서

울리고 웃기는 才辯三重奏

野談大會

庾秋岡氏

玄哲氏

申鼎言氏

演題

업지못할人物(野談) 申鼎言
壯士의恨(野談) 庾秋岡
感孝代命(演談) 玄哲
贊助出演의歌手
新民謠 盧碧花
流行歌 崔南鏞

曆

十二月五日 (木)
十一月建戊子(大) 十日
乙卯·水·井·定

●祭祀冠帶時刻은卯時坐向은西北 嫁娶·移徙·裁衣動土·上樑卯時 開市納財·安葬·啓欖에宜함
●大雪八日(舊月十二日)
●冬至二十三日(舊月廿八日)

短篇小說

惡夢 【四】

咸大勳 作
夕影 畵

영기 남쪽나라 제주도로외로히 떠나간지 어언 넉달이란 세월이 흘러가버렷다 그동안영자게서는 거이 규측적으로 나흘에 한번식 편지가 왓다 아즉도 찬바람치는 서울서는 생각도못할남국의 소식은 원철에게 한없이 로ー맨틱한 정서를 일으켜주엇다 태평양프른물결이 끗업는 수평선으로 하늘끗까지다흔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며 밀감나무사히로 혼자 자박자박 걸어단인다는 임긔체의 편지며 해녀의 건강한몸동아리를 바라보면서 자긔의시드른육체를 생각할때 끗업는 애수가 가슴깁히서린다는 눈물겨운 편지며 한번도 들어보지못한 이상한 민요에 끗업이 도취되여 때로는 계집애들을 더리고 하로종일 그노래를 듯는날도 잇다는 유래한긔분으로쓴 편지도 잇섯다

그러나 원철은 최근에 와서 이런 뜨거운독하ー든독에서 진심으로쓴 영자의 편지를 바들때마다 가슴의 한구석을 바늘끗으로 찌르는게 잇섯다 그것은 경숙이와의 관계엿다 영자가 떠나가기전부터 경숙의 그 현대적인 신선한 촉감과 요염한매력에 끌리지안은건 아니지만 영자업는 그동안엔 더한층 이상하게도 경숙이와 접근해지고 말엇다 속마음으론 그래선 안될것이란것을 마음속게생각하고 잇섯지만 결국『연애는거리에잇다』는 말이 한개의진리처럼되여 그들은 하로 이틀지나는 사이에 어느듯 깁허진 사랑의 함정에서 헤여날수가 업게되엿다。더구나 그 탄력잇는 육체 현대적인『프레쉬』한 감각 그 적극적인 정열의 히로인인 경숙이의 창잉에는 아모리 남국에서 오는 뜨거운 영자의 정열적인 편지도 당할수가 업섯다결국 그들은 넘어서는 안될 경계선까지 넘고 말엇다。

원철은 오늘도 이비극적인 삼각관계를 생각하며 혼자 괴로운 가슴을 쥐여뜻고잇섯다 그런데다가 아츰에온 영자의편지를 읽고는 더한층 마음이 어즈러웟다 남쪽나라 외로운섬에서 혼자 애닯게 자긔를 생각하고 잇슬 영자의모양이 눈압헤 어른거릴때 확실히 원철은 암동에서 허덕이는사람모양으로 가슴이 무겁고 숨이막히고 온몸에 식은땀이 방울지를듯기엇다。

『…… 오늘은 멀리 북쪽을바라보면서 원철씨를 생각해서요그리군 압바다 프른물결우에둥실떠가는 긔선들이 구슬히 울리고가는 처량한 긔적소리에 내그리움은 더한층돕아젓서요 애인을 생각하는그 그리움 그것은 어린 사람이 그리는 향수(鄕愁)보다 못지안케내가슴을 괴롭핍니다 그러나 저는 이정렬적인 남국에서 보드런 바다바람과 생신한 해산물로 몸은점점 가비야워갑니다어쩌면 강남의 봄빗이 몰으녹을때 원철씨를 뵈올넌지도 몰우겟서요……』

하는 글구가 잇는 편지를 볼때 원철에게는 아ー모래도 영자의 모양이 가엽고 글입어 견될수가 업섯다 벽상에걸린 칼렌다를 처어다보니 어느듯 이월십오일 범서 봄기운은 찬바람을 타고 꿩꿩언 하늘에 요리조리 맴도리치고 잇는것갓다 원철은 담배하나를 피어물고 멍하니 창너머로 밝을내다보앗다 아즉도 뚤압헤 싸힌눈은녹질안코 나무가지엔 찬바람이차웁게 부다치고잇는것갓다 그는 다시 창문을 열어제첫다 그리고 마루끗으로 나섯다 그러나 아즉도 봄빗은 차슬수업고 찬겨울풍경이 눈압헤 차웁게 전개되고 잇슬뿐이다『봄은 아즉두울날이 멀엇는걸』이러케 자위하는마음으로 그는 발길을돌려 다시문을 닷치고 방으로 드러섯다

『오빠!』

뒤에서 명랑한 말소리가 들리자 원경은 경숙이와가티 방안으로 서슴지안코 드러선다

『……』

『웨 오빠 편찬으세요』

뒤도도라보지안코 방바닥만나려다보고잇는 오빠얼굴에 우수가서린것을보고 원경은 말소리를연게하야 걱정스런듯이 원철의 얼골을 치어다봣다 경숙이도 불안한얼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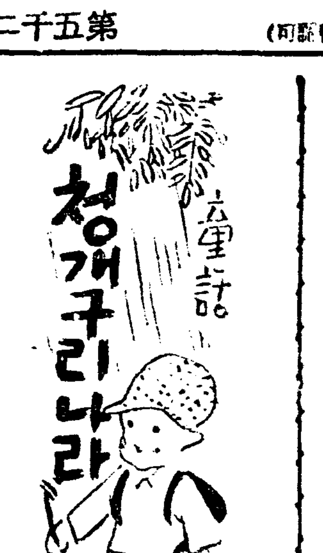
『어듸 편찬으서요?』

하고 원철이게로 갓가히다어서며 그의얼골을 독독히 들여다봣다 그러나 선난듯한 그의얼골은 조금도 풀리는 긔색이업섯다

童話

청개구리나라 ④

李龜祚 作



어제밤 진땅에 두몰이 야원 생각을 하니 이여를 내내 댈길 마음이 잇던 여행을 착 끗고싶습니다。

청개구라나라
참개구리나라
두꺼비나라
맹꽁이나라
못속나라 합중국(合衆國)
우물속나라 합중국
……………

이박게도 여태사람나라에서알아 내지못한것까지 차자보려던 큰뜻을 세웟던것입니다。그러나 어제밤 질철미에 개구리들은 다 이따위가……하는 씨뿌드럼한 생각이 들엇던터이라 두꺼비나라로 가려던 계획(計畫)이 확변하게 됩니다。사람 나라에서 흔히 웬만큼 사리에 어그 러저도『우물속의 개구리』라고 빈정대지를 안습니까? 참개구리나라에서 본욕을 합중국 우물속나라에서 풀리라……마음을 앙큼하게 먹고 그나라를 향해 뜰어갑니다。

눈꼽만치 경우에 빠지는일이 잇슬지라도 육지거리를 펴부울 작정입니다『서울서 수모밧고 시굴와서 주먹질하긴』란 이를 두고 이른말이 아닐지……

『사람나라서 려행온 손이오』

『그러세요』

뚜박게 상냥하기가 그지업습니다。넷날에 거북가가 차저왓슬때처럼 거만스럽게 굴어야 험한길을 온목적을 달하고 나올터인데 사람나라에서 전하는 말과는 판판 다릅니다。

『여기가 우물속 개구리 합중국이오?』

아뿔사 길을 잘못 들엇나……의심이 나서 물엇드니

『그러와요』

똑똑하게 우물속 합중국이 틀림이 업습니다。잔뜩 딴마음을 먹고 온 나—얼굴이 뜨워오는것을 모르는척 시침이를 뗄밖게……

개구리의 말이 거북기가 왓다간후부러는 거만한어리를떼여버린지가 오랫다구 합니다

『지금 세계형편은 어떠합니까』

하고 닥아안즈면서 뭇습니다 나는 영국 미국 독일 에디오피아 장개석(蔣介石)이 얘기를 죽 주서섬겻드니

『참 어느고장서 오셧서요?』

『조선이오』

좀 이상해하는 눈치가 보이드니

『조선말슴은 여태 안해주셧지오 얼구시퍼요。좀 해주십쇼』

『글세 할말이 그닥……』

『겸손의 말슴들다 하시네。제고장것을 모를리구요?』

실상인즉 조선에 대해서 알아볼 염도 안내본터ㅡ우리끼리잇스니말이지、이런소년소녀가 나뿐입니까ㅡ이나 멍멍하구 안자잇슬수도 업구해서우물쭈물몃마디를 햇드니

『시장하실텐데 진지나 대접하구나서 록록이 물어바야지……』

생긋거리면서 저녁을 날라옵니다。이름모를 반찬에 구미가 돌기는 하나 슬며시 겁정이 나서 숫까락이 더듸게 들어갑니다。

저녁상을 치고나서 거지반 잘때까지 개구리가 조선얘기를 뭇는데 열에 여덜은신통한 대답을 못 할뿐더러댓구도 못노흘께 수두룩 합니다。

ウテナの大懸賞

우데나의

スターからあなたへ、年賀状 締切迫る

愛用者全部優待

一、水谷八重子孃의新春人事
二、坂東好太郎氏의一九三六年의年賀狀
三、山路ふみ子孃의昭和十一年의年賀狀
四、올ー女性(小雜誌新年號)
五、우데나化粧品試用型

右記中希望條目一件式全部優待

景品 (抽籤贈呈)

一等 小濱縮緬訪問衣 一百名
二等 特製伊達卷 一千名
三等 (水谷八重子 演劇物語 / 山路ふみ子 映畵物語) 어느거나一冊 一萬名

締切 十二月二十日

景品 重要한當籤者는 明春一月中東京日日、大阪朝日兩新聞紙上에發表、年賀狀以外의景品은 明春에 各各送呈함

規定

ウテナクリーム、ウテナ白粉、ウテナポマード等 ウテナ化粧品의空函一個에右의水谷、坂東、小路 을ーウテナ中에希望의一件만住所氏名及朝鮮日報 名을記入하야반다시꼭封書로左記에郵送하여주시 오한분이몃장이라도내여도關係업스니만히내어주 시오函의두게와바닥은切棄하시오。郵稅不足은謝 絶합니다

東京市本鄕區本鄕二丁目
ウテナ本舖懸賞係

10.12—6.1

學藝

蕭條한 一年의 總決算的序詞 (五)

李軒求

評論界

國際關心의歸趨

今年(一九三五年)六月 巴里에서開催된『文化擁護國際 作家會議』는 所謂非常時的 世界의文化全線에 向하야 一의 衝擊을 일으키엿다 오늘에잇서 政治와 經濟의모든部門이 새로운國家主義的파시즘으로 轉向하고잇다는 事實은 吾人의常識이 이를認識하고잇는바어니와 이러한

一時機一 에잇서서 文學者를 中心하야 새로운世紀의 人間精神을 擁護하는 國際的運動이 勃興하엿다는것은 實로 우리로하여금 最大의關心과·感激을가지게한다。그러나 다시 우리自身이 이에 對하야가진바 內部的感受意慾이 얼마나 迫力하게 作用되여왓는가를 回想할때 實로 寂寞한心境을 禁할수업다。

갈수록 思想發動의主力이 自由로운 伸張을못하게되고 우리가 가지는 國際的關心이란 非常的爆發—戰爭—의 程度에 逡巡하고 잇다는것을 생각할때또는 文藝作品이 思想的苦悶 時代的 不安을反映하기보다도 現實的疲弊와 貧困과 悲慘을 描寫하는傾向으로 흐르는 同時文藝內容이 가질바思想的또는 人間的 永遠한 苦悶相보다도 環境을그리고 表現될바 文章道—形式乃至手法에 充實하라는 作家風이 旺盛해지라는것을 미루어볼때 우리는 朝鮮文學을 創作한다는 獨自性에 모든文學行動의 全般을 依從식히라는 傾向이 濃厚해진다는것을 더깁히 느끼게된다。換言하면 朝鮮的인

一文學一 即朝鮮냄새가나는文學을 맹그러낼라는길로 作家들의 努力은 集中되엿다。이것은 今年度의創作을注目한다면 누구나 이特徵을發見할것이다。

그러면 評論家의活動도 이와 同時에 우리가創作하고잇는 作品批評에만 그領野를集中 狹小化하라고 努力해왓는가? 筆者는 그러타고首肯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러면 評論家의 關心은 國際的 又는人間的思想의動向에 置重되엿든가? 하면 이亦그러타고 首肯할수업다 우리는 今年一年間 文藝面을通하야『빅톨유고의 死後五十年』과 『발르뷰쓰의죽엄』과 『톨스토이二十五年祭』의 時事的關心이 잇서왓고自由主義文學의 行路와 國民文學建設의 途程을 先進諸國의 史的發展을 通하야 論議하여왓다 그러나 現在朝鮮文學을 規定지을바 最大課題가 國民文學이냐 또는 自由主義文學이냐? 又는 世界的으로 共通되라는 共體니즘이랴?하는 文學이 가질바思想的領域에 對하여서는

一的確一 한 또는決定的 提唱이업서왓다

그反面에 D·H·로ㅡ렌스論이東亞朝鮮紙上에 發表되여왓스나 그러라면 現在朝鮮의 作家에게 로ㅡ렌스의 形而下的文學世界가 가장切實히 要求되엿는가?하면이에對하야도 評家뿐아니라 作家의努力은 더욱等閑하엿다

우리는 評論家나作家가 우리의作品읽기를 게을리한다는 忠告를 드러오거니와 그反面에朝鮮의作家나 評論家와가리 外國의作品이나 새로운 思想的源泉에對하야 無知에 가까우리만치等閑한事實도 다른 文化社會에서는 發見할수업슬것이다。鄭寅燮氏가 月前 文藝時評에서 幾多의 國際的用心에對한長皇한 論說이잇섯스나 이一文이 아직까지는 抗議的結果만 招致하엿슬뿐이오 좀더朝鮮과 關聯식혀서 우리의現實을 洞察하라는 行動性에까지 이르지못한것은 무슨理由일까? 二十世紀以後로 더욱昨今과가티 思想的反動、又는混亂期에잇서서 우리의 國際的關心은 어느程度까지가저야되고 또우리의自我發見에對해서는 어떠케 努力해야 할까? 하는

一眞摯一 한 課題가 좀더 活潑하게 또는 深刻하게 當然히 必然的으로 出現되여야 할것이아닌가? 人間性—思想、感情—의 完成이라는것을 意味한다면 우리는 좀더 넓히 또는 좀더 깁히 自我—個性—人間—社會의 發見으로 나아가야 할것이요 文學은 새로운 人間性發見을 爲한 反抗、否定、鬪爭이라면 우리는 切實히 이反抗、否定、鬪爭의藝術的 表現을 爲한 一人間으로의 새로운 努力과 敎養과 思索과 行動이 잇서야 할것이아닐까?

現代 批評의『딜렘마』

批評·鑑賞·製作의限界에對하야 (4)

金起林

『파운드』는 가른序文속에서 批評하는 藝術에 事實로 進步發展을 가저오는사람을 最上級의批評家라고 하엿고 다음에 製作最上의것에 讀者의注意를 끄으는사람을 그다음가는 優良한批評家라고하엿고 이러치도 저러치도안코 最上의 作品에서 도리혀 讀者의注意를第二級以下거나 또는 그가 쓰는것 自體로옴기게하는 批評家를 毒蟲이라고 한말은 우리에게 示唆하는바만흔것을 가지고 잇다고 생각한다

『엘리옷트』는 한거름더나아가서『勿論批評的著書나 論文이 만해지는것은 事實로도 만해지고잇지만 作品그것을 읽는것보다作品에關한著作을 읽는 惡趣味를 맨드러낼것이다。그일은趣味를 敎育하는대신에 意見을 供給하는것이다』라고 말하엿다。

우리도 作品을 읽기전에 그것에대한 批評을 읽으므로써 그作品에대하야 어느듯한개의 偏見를 注射바더가지고잇는때가 얼마나 만흔지모른다。오늘에 이르기까지도『단테』나『쉑스피어』에 대해서조차 뭇사람은 그作品에서 어데세운自身의 意見이아니라 傳播된 남의意見을 그대로 품고잇는것이 大部分의事實이다。

오늘의 우리가 어떤 作家나作品에대하야 가지고잇는 觀念이란는게 大體로 이러한移植된 偏見인 境遇가만타。作品에關한批評만읽는것도 이처름 不良한일인데 더군다나 直接 作品에 關한것이 아닌 批評論만을 만히 읽게된다고하는것은 病的인 窮餘策을 徵候하는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이러케 오늘의 文壇의 通弊는 사람들의 作品대신에 批評을 읽는일이다。그것도 더군다나 作品과 關聯이 업는 批評論인때가 만타。

이 弊害를 업시하기 爲해서도 위선 批評家는 批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作品을 읽고 그리하므로써 具體的인 作品에 關한 實質的 批評을 보여주어야 할것이라고 밋는다。

다음에 批評은 哲學이기前에 科學이라야 할것이다。다시 말하면 批評家는 對象으로써 提供되엿거나 選擇한 作品을 判斷하기 前에 그것을 構成하고 잇는 뭇要素로 分析하야 그相互間의 關係와 및全體와 그各部分과의 關係를 究明해야할것이다。

分析한다음에는 解釋해야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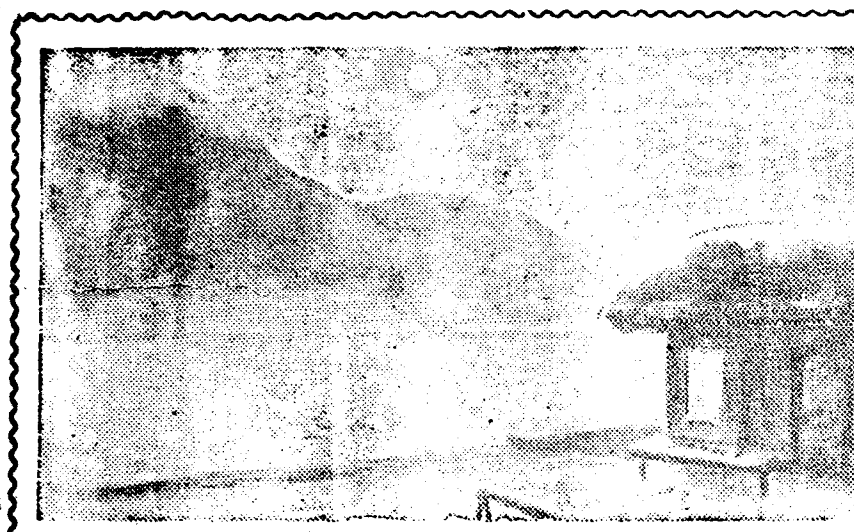
그리고 比較하고 判斷하는것은 批評이 해야할 最後의일이다。

나는 批評의基準은 批評하는作品이 갈릴때마다 갈려야된다는 『엘리옷트』流의 意見에는 반드시 同意하고십지는안타。萬若에 批評家가 判斷하기전에 充分히 또公平하게 分析하고 解釋하엿다고하면 그다음에는 그一流의 基準을 가지고 判斷할 權利를 그는 主張할 根據가 十分잇다고생각한다。

또한分析도 아니하고 解釋도 아니하고 다만 判斷만 提示되엿슬때 우리는 그判斷의 理由를 알수 업서서 唐慌한다。어떤 意見의 理由를 說明하는 일이업시 單純히 意見만을 가지고 오늘의 讀者에 强迫하려고하는것은 無理하기 짝이업다 우리는事實로 우리의 周圍에서 科學이기를逃避하고 性急하게도 哲學이고시퍼하는『돈·키호ㅡ테』式의 부어오른『아리스토텔레쓰』들을 만히 구경할수잇는것은 빼아픈風景의 하나다。

그우헤 이種類의 評家가 德性조차 업슬경우에는 한作品속에서 企圖된 여러가지 文學上의 實驗이나 發見은 故意로 無視하거나 또는 盲目이여서 오직 自己의 判斷에 有利한 點만을 가려서 攻擊하거나 貶下하는 材料를 삼을때에 그作家나 詩人이 밧는 被害란 實로 큰것이다。그는 그 억울한 損害를 어디가서 補償바더야할지모른다。이러한 暴行에 가까운 批評에서 文學을 保護하는 것은 틀림업시 文學의 進步를 爲하는일이될것이다。

또한 批評家는 그의 分析과 解釋의 過程에서 그作家나 詩人의 立場을 抽出해야할것이다。假令 여기에 精神分析의 立場에서 쓴 作品이 잇다면 그作品이 그러한 立場에서 씨어젓다는것을 提示하고 그러한 立場으로서는 그作品이 얼마나 成功하고 失敗했다는것을 보여주어야할것이다。그다음에는 그는 그러한일까지 좋든러 너허서 그作品에 대한 自己一流의 斷判을 나릴것이다。



峽地行 (4)

鷺山

丁峰이란마슬에서 하룻밤을 지나기로한다。마친 달밝은밤。몬지업는山村이라 달은더욱밝다。오늘밤내가자는 이酒幕에는 여러種類 나그내들이 가리들엇다。이中에는、이기픈 山峽으로 사슴사냥 들어온 捕手들도잇다 생각하면 가엽슨 일이다

山峽에 달도밝다 히다못해 푸르고나
어엿븐 저사슴이 달구경 하리로다
오늘밤 山맛酒幕에 捕手든줄은 모르고서。

海西紀行 ②

朴花城

海州는 그일홈의 참ㅡ하고아담한것처럼 그山水와 市街도곱고 맑고 깨끗한 곳이엇습니다 山들은 과히 놉지안흐나 어찌그리 아름답게 빼여낫스며물구비는 만치안흐나 그하나이라도 어찌그리 찻고 맑게 흘읍니까?

나는 首陽山 중턱에 올나가『百世淸風』이라고 大書特刻한伯夷叔齊의 碑石을 보앗습니다。내이제 새삼스럽게 우리先祖의 큰根性이 되여잇는 事大主義를 非難할 정성스러운 시간은 가지지못하엿스나 이큰 돌비가首陽山의 秀麗한 姿態를 犯하고잇는것을 바라볼때 가슴에서치미는 鬱憤을 구래여 가라안치어 버리기도 실혓습니다。

대체 周나라 孤竹君의 두아들 伯夷와 叔齊가 우리의 檀君族과 무슨 血緣이 잇기에、또한 中國 山西省 永濟縣城에잇는 雷首山이라는 그 首陽山이 우리海州의 이首陽山과 어떠한 山脈의 通함이 잇기에首陽의 이가는 허리에다 이우악스러운 큰돌맹이를 채워노핫슬까요?

殷나라의 舊臣인 伯夷와 叔齊가 祖國이 亡하엿다고 周나라의 米粟을 차던지고 首陽山에 드러가서 고사리를 먹다가 드듸어 餓死하엿다는事實을 痛快하게 비우슨 成三問의『고사리는 周나라의 풀이아니더냐』라고한 말귀를 생각해보면서、三千餘年前의 이러낫든 묵은사실이 바로어제의일이런듯 새로운 記憶을 여르켜주는 百世淸風네글자를나는 물그럼이 바라보앗습니다。

올습니다。이것은 분녕이 이두사람의 淸節을 본바드려는우리先祖의特案임에 틀림업습니다 그러나 이러한不斷의 修養을싸앗슴에도 不拘하고또한 그러한機會가 잇섯슴에도 不拘하고 우리祖先中에서 일즉 伯夷叔齊

목도리를 치켜올녓습니다。

나려오면서는 여름三伏에도더위를 아지못하고 살어갈 海州住民들의 幸福을 부러워하며가지말나고 소리처 붙으는듯한水石을 되돌아보앗습니다。

나는 市場을향하야 갑니다。全鮮的인 내고향 木浦의 公設市場을 마음속에 자랑해보면서 …。『크면 얼마나 크겟기?』하고 아모리 접어보려하엿스나 海州의 市場은 참으로 大規模이엇습니다。勿論 木浦市場처럼 외갓 物品이 가저워잇다는가、갓색海産物이 豊富하게는 잇지 아니하나 바다고을이니만치 海物은 상당히 만헛습니다。더구나 굴이 어떠케나만흔지 ·굴은 果然海州市場의 代表的 商品이엇습니다。

내가 海州에서 가장 감탄한것은이곳안악네들의 인물과 말소리가몹시 곱고 부드러운것이엇습니다 하얀수건아래 계롬하게 혹은 달덩이처럼 나타난 그네의히고 잘생긴얼굴이며 길거리에서 서로 만나서나 市場에서 물건사면서 말하는 부인들의 태도(한얼갓 저고리잉은)와 부드럽고 魅力잇는 말소리는 斷然 朝鮮十三道부인중의 王座를 차지할것이입니다 나는『내가만일 男性이엇드면 반다시 海州부인을 모실것을』하는생각을 하엿습니다。

新春懸賞文藝作品募集

新人을 招請한다!!

應募期限 十二月十五日까지

◇創作小說 ― 四百字原稿紙七十枚以內에쓰시되 글씨를 똑똑히 정하게 쓰십시요
賞金=首席 一篇五十圓 次席 一篇三十圓

◇戱曲 ― 一幕以上三幕以內의것으로 쓰시되 글씨를 똑똑히 정하게 쓰시요
賞金=首席一篇五十圓 次席 三十圓

◇詩 ― 長短은 隨意로하시고 每人이 數篇式 應募해도 無妨합니다
賞金=首席一篇 十圓 次席一篇 五圓

◇時調 ― 入選者若干人에게 賞金各五圓式 드립니다

◇民謠 ― 入選者若干人에게 賞金各五圓式 드립니다

◇童話 ― 슬픈이야기보다、깁부고 기운날 이야기를 쓰십시요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賞金=入選若干篇에 對하야 各篇에十圓式

◇童謠 ― 入選者若干人에게 賞金各五圓式드림

注意 ●應募된作品은 入選落選을 勿論하고原稿를 一切返還치안습니다 ●보내실때는『朝鮮日報社學藝部新春懸賞文藝係』라고 쓰서야됩니다

朝鮮日報社學藝部

漢詩募集

題 迎春
押 生
限十二月十五日 (薄謝進呈)

『차ㅡ삼』島에…… 『마ㅡ윈』銅像建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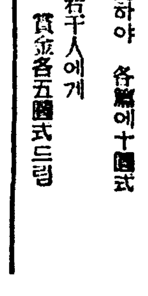
【紐育發聯合郵信】進化論者다윈이 에콰도르의차삼島를 訪問한것은 一八三五年의 일로今年은 꼭一百年에當하므로 紐育의 다윈記念會員間에서는 今回同島에 다윈記念碑를 建立하자는말이나서 目下에콰도르政府와 記念碑建設에 對하야交涉中이다

다윈記念會側의 計畫으로는 記念碑의臺는『바자、라바라고하는 차삼特産의 熔岩으로만들고 그우에는다윈의 胸像을안치기로되엇다 胸像은 有名한 윌리엄、카버作의 다윈像을原型하기로되어 紐育博物館의 好意로이미 同原型은 에콰도르로發送되엇다 記念碑製作을 爲한 石工、彫刻家의 一隊가 에콰도르에 赴하기로되엇다

竣工되는때에는 英國으로부터 自然科學代表、에콰도르政府委員參列下에 盛大한除幕式이 擧行될터이다

그런데 다윈이 차삼島에 건너간것은 겨우廿五歲때이엇는데 그때 그는『種의起源』에 對하야 最初의『인스피레이슌』을어덧다고한다

『비라밋드』의建設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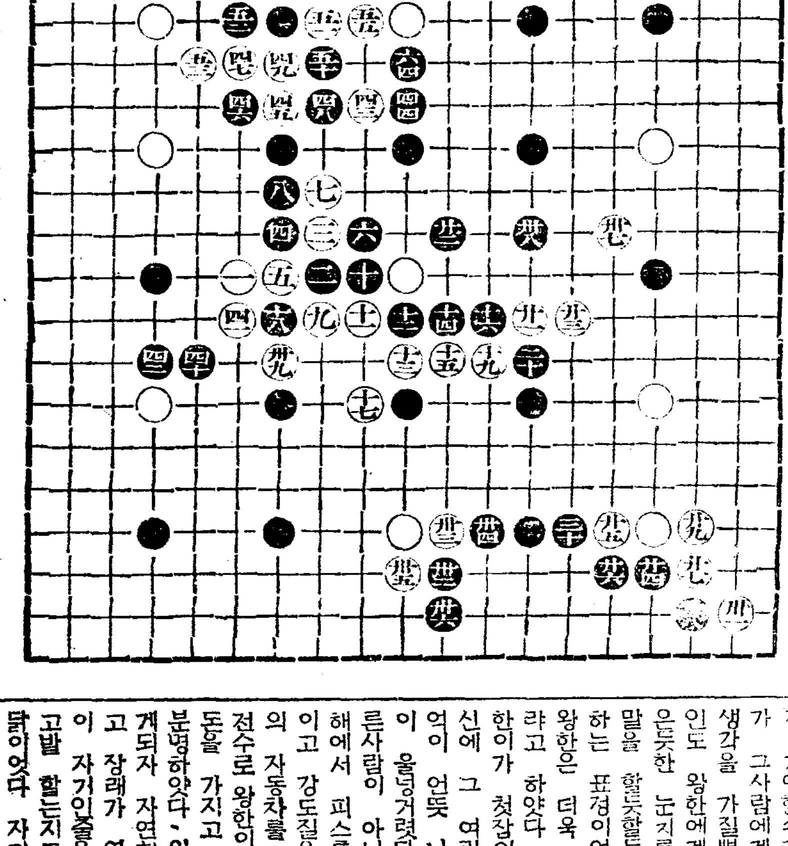
【伯林發聯合郵信】『埃及의비라밋드는古代埃及이 建設한것이아니고실상은『金髮의北歐人』(브론드노ㅡ딕스)의손에서 만드러진것이다』하는新說이近者伯林에서發表되엿다 發表者는[illegible]埃及學者『카리ㅡ弁』氏로서『아北歐人들은紀元前三千年의 녯적埃及에侵寇한것으로서 偉大한埃及文明과 에디오피아』文明은 總히그들에서게發祥하엿다』고말한다

圍碁對局譜 ＝4＝

本社主催

白 丁奎春
黑(六級) 李英鎬

○	四八	寅의五
●	四九	丑의五
○	五〇	丑의四
●	五一	卯의四
○	五二	辰의五
●	五三	丑의三
○	五四	子의四
●	五五	辰의二
○	五六	巳의二
●	五七	辰의三
○	五八	巳의三
●	五九	子의二
○	六〇	癸의二
●	六一	壬의三
○	六二	癸의三
●	六三	癸의五



◆李極文氏評

黑이 背後에 危險을 不覺하고 寅의 四將救出次로 卯의 四 丑의 三으로 白을 驅하고 本營編成은 小規模로 論할뿐아니라 失策을 看破하노라 假初에 白이 丑의 四로 斷할때 黑이 子의 五로 應手를벗고 辰의 五로 白을 驅逐하야 白耳角을 攪亂하면 上策이 아닌가 排鋪計畫에 優劣이 懸殊함을 推此自批하노라

黑風 【191】

韓龍雲 作
金熊·超 畵

복수(復讐) 1

하로는 왕한이가 미국으로부터 온 콜난의 편지를 밧엇다 그편지의 내용은 사랑에 대한 말이·전폭을 차지한 남어에 자기는 금법봄에 무사히 졸업을 하고 각지로 여행을 다니며 구경도하고 수양도 하다가 지금은 고국으로 도라갈터인대 먼저 향항에 상륙하야서 광동으로 가겟다고 하고 자기가 타고 올배이름과 향항에 도착할 일자를 자세히 적어보낸 것이엇다 그것을 본 왕한은 반가운 마음보다 엇더케 처치해야 조을까 하는 적정이 먼저 나고 콜난에게 대하야 미안한 생각이 계속되얏다。

왕한은 콜난이가 향항에 도착하겟다는 날에 향항까지 마종을 가랴고도 하얏지마는 그임시에 당의 공무로 인하야 향항에 가게되얏슴으로 콜난이가 상륙한다는 일자보다 몃칠 전기하야 갓던것이다

왕한은 ○○여관에 드러서류하는중인대 그여관 주인이 대단히 낫이 익으면서도 누구인지 기억할수가 업섯다 왕한이가 그사람에게 대하야 그러한 생각을 가질뿐아니라 그여관주인도 왕한에게 대하야 낫이익은듯한 눈치를 뵈이면서 무슨 말을 할듯할듯 하면서도 아니하는 표경이엇다 그리 할수록 왕한은 더욱 그사람을 아려보랴고 하얏다、이튼날 새벽에왕한이가 첫잠이 깨면서맑은 신에 그 여관 주인에 대한기억이 언뜻 나면서 약간 가슴이 울넝거렷다 그 사람은 다른사람이 아니라 왕한이가 상해에서 피스톨로 장지성을 죽이고 강도질을 할때에 장지성의 자동차를 운전하든 자동차운전수로 왕한이가 던저준 십만원돈을 가지고 도망한 그사람이 분명하얏다、왕한이가 그것을 알게되자 자연히 마음이 불쾌하고 장래가 염녀되얏다 그사람이 자기인줄을 알며는 경찰에 고발 할는지도 알수가업는 까닭이엇다 자기의 강도사건이 아모리 경찰청장 소욱에게 양해를 어더서 일단락이 되얏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정탐으로잇든 순욱의 사건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혁명에 종사하는니만치 만일 그일이 드러난다면 여러가지로 자미가 업시될것을 염녀하는 까닭이엇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세상에는 가튼사람도만한것이잇즉 흑은 그사람이아닐까 그사람가트면 일자이후에 반듯이 숨어다니다가 어대서 산대도 숨어서 살터인대 향항가튼 대도회에서 살수가 잇스며 이러한 도회지에서 산다할지라도 한편구석에서 아는듯 모르는듯 살것이지 사람을 만히 접촉하는 여관영업을 하는것이 이상하고 또는 그사람이 그때의 자동차운전수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자기를 아러볼수가 잇슬가 그사람이 장지성의집에 잇섯스나 자기가 장지성의집에 래왕할때에는 한번도 맛난일이 업고 상해은행 문압헤서 장지성이와 가치자동차를 탈때에는 부지불각에 탓슴으로 운전수로서 자기의 얼굴을 자세히볼 여가가 업섯고 자동차를타고 갈때에는 뒤에 안진 자기로서는 운전수의 얼골을 자주볼 기회가 잇섯스나 운전대에서 운전에만 전심하는 운전수로서는 자기를볼 기회가 조금도 업섯슬것이오 장지성을 죽인뒤에 피스톨로 겨우고 돈을 던저줄때에는 자기의 얼골을 바로볼수가 업섯슬뿐 아니라 다시 그사람의 눈이 자기의 얼골을 대하얏다 할지라도 망자가 뒤집혀서 정당한 시각(視覺)이 업섯스리라고도 생각하얏다·또는 그사람이 자기인줄을 안다 할지라도 고발할수는 업슬것 가튼다웨그러냐하면 그사람이 자기와공범은 아닐지라도 자기가 던저준 십만원돈을 가지고 도주한 이상 범죄상으로 면할수 업는일인즉 자기를 고발하는것은스스로 화약을 지고 불로 드러가는것과 마천가지인즉 아모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러한일은 행하지 아니할뜻도 하얏다

그리하야 대범하다면 자기의 밥먹는것까지 이저버릴만치 대범한 왕한이가 세밀할때에는 담배씨를 갈겨너 팔만큼 미세하야서 그러케 보통사람으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지경까지 정세하게 생각하는것이엇다

病을곳치려면…먼저 胃腸을튼튼하게하자

食慾減退(식욕감퇴) 便秘(변비) 消化不良(소화불량) 脚氣(각기) 乳兒綠便(유아록변) 下痢(설사) 自家中毒(자가중독)

치위를 타서 발육이 조치못하게된때

귀여운보배—아드님 따님의발육(發育)이좃치못하고 아모리조흔음식물을먹여도 잘살노안가는때는 그부모의걱정은 무엇보다도 큰근심일것입니다。「밥투정」「반찬투정」을하면서도 잘먹지안는어린애들은 반듯이 밥맛을업게하는원인이잇서々그런것이니 이런때에는 일반영양학계서나 전문의사게에서추천하는「비다민비」의진국인『에비오스錠』을먹이시면 밥도잘먹고 먹은것이모다살노가며 병에대한저항력이강하야저서 몸도 튼々해집니다。그것은「에비오스」의 주요성분인「비다민에이、비、씨、디、이」와「갈쉬움」「크레코ㅡ겐」이외 이십여종의 귀중한활성교소(活性酵素)가 全的으로 전신에흡수되는싸닭입니다。

慢性胃腸病은 原因療法으로 곳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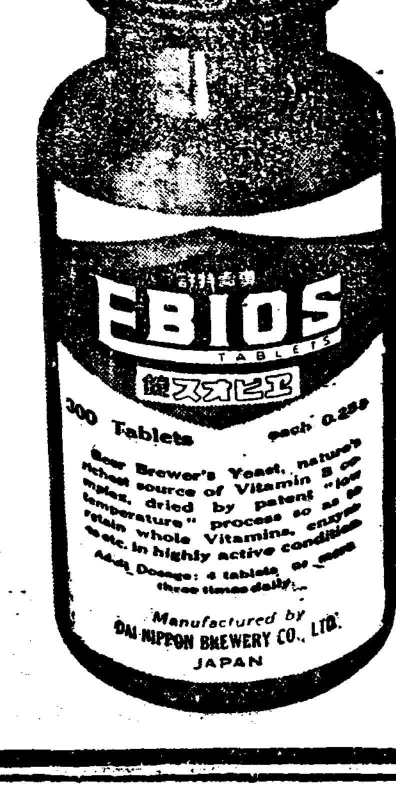
머리가늘무겁고 변통이좃치못하며 배속이거북한이는 흔히 一時的듯는다고 위산 소화제 변비약등을 사용하시나 이것은 인이백이거나 더욱병을심하게하는수가만흐니 반듯이 근본적으로 위장을튼々히하야주며 위장의활동을민활케하야 自然的으로 변통을좃케하고몸전신의쇠약을 속히회복식혀주는「비다민비」의진국인『에비오스』로 원인료법을하여주시기바람니다。

즉「비다민비」가 부족하면 구미가안돗고 위장이 약하야지며 몸전신의활동력이 쇠약하게되는것이니 비다민비와 귀중한 각종의酵素의진국인 麥酒酵母에비오스로 치료하시사 건강의행복을어더주십시요。

三〇〇錠…一圓六十錢
一〇〇〇錠…四圓八十錢
그외各種粉末이잇슴
全道藥房에서販賣함

삿보로·아사히 유니온·에비스 麥酒釀造元
大日本麥酒株式會社
東京·大阪 田邊商店

エビオス錠에
(에비오스정)



馬越藥學博士創製
淸谷農學博士監製

EB-K 50

元山의重大問題 水產社事件落着
三輪元山署長의斡旋奏效로 海產商側에有利解決

【元山】 저예망어업(底曳網漁業)이란 특수어업의 권리를 획득하고 매변수만의 리익을 보고잇는것도 유부족하야 그어획물의가격을 일방적(一方的)으로 그리의의 확보강화를도할 목적하에 저반에 설립된 동해수산주식회사(東海水產株式會社)의출현은 수백년래 부조전래로 명태어의 위탁판매와 건명태의제조및 가공을하여 오든 원산조선인의의 권득권을 침해하야 그들의생존권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저반래 당업자들이 궐기하야 그반대운동을 개시하는일방 지난이십칠일에는 각요로당국에 진정키로 되엿스나 원산서 삼륜서장이 타협식혀주겟다는 호의에 일절을 삼륜서장에게 일임하고 그회답이잇기만 고대하고 잇섯다함은 귀보하얏거니와 그동안 삼륜서장은 쌍방으로 몰아단기며 조정에 노력하든니 지난 삼일에는 쌍방을 원산상공회의소에 회동시켜 모이게하고 다음과갓치 원산해산상들에게 유리하게 원만히 해결되게하엿다는데 이로서 근일개월이나 세상의물론을 자어내든 원산해산물어업자의 중대사활문제는 락착을 지엇다고한다

一、東海水產株式會社는 元山에 上陸하는 明太魚全生產額의 二割만을 買受하기로함

二、明太魚委託販賣에 對하야는 이미契約한 京城에만 限하고 其以外地와는 契約치안는 同時에 販賣치안키로함

三、肝油製造는 申請한許可如何에 依하야 態度를 決定키로함 但妥協으로 解決을하기로함

이상과가티 원산해산물소상공업자가 삼대요건을 고수하던만큼 그대부분은 해상들에게유리하게 해결을 본것이라고한다

鴨江結氷完合
—咸南國境—

【咸興】 이일함남도경찰부에도달한보고에의하면 혜산서(惠山)관내 압록강(鴨綠江)은 지난십일월중순부터 결빙하기시작하여 지난일일현재에는 동서관하 고거리(高巨里)부근 약오정가량은 완전히 결빙되어 대안과의 빙상도섭하게되엿다하며 상신풍리(上新豐里)하신풍리에 잇서서도 약륙십메돌가량은 결빙되여빙상교통에 아무위험이업는상태라는데 동서에서는 대안토비등의 월경이 극히용의하게되엇다고 경비에 전력을다하고잇다한다

迷宮에빠저잇든 火藥紛失事件
마츰내犯人을逮捕

【咸興】 귀보 신흥군하원천면(新興郡下元川面)명태동금산(明太洞金山)에서 주문하여온 화약(火藥)십륙관이 들어잇든 석탄부스럼이가 갓득들어 잇섯다하는 화약분실(火藥紛失)사건은 사건발생이래 도경찰부가 직접지휘하여 관하각서와련합하여 그범인수사에 대활동을 개시하엿스나 사건은 의연미궁으로 세인의주목만 끌고잇든바 수일전 함흥부대화정(咸興府大和町) 덕본상점(德本商店)점원 협모(脇某)를 검거하여 취조한결과 의외에도 전기화약절취범행을 자백하엿슴으로 즉시도경찰부에서 직접함흥서로 넘려와서 배후관계로 엄중 취조중이라고한다

強盜目的으로殺人 掩罪코자放火까지
神人共怒할此罪狀 —犯人畢竟은就縛—

【長津】 지난이십오일 장진군상남면천의수리(長津郡上南面天宜水里)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죄를 은의하기위하야 죽은사람을 자살한듯이 목을매여달고 피해자의집에 불까지노은 신인이공노할만한 사실이 잇다는것을 당지하갈경찰서(下碣警察署)에서압고 즉시서원 장성해(張成海)곡구(谷口)두순사가 현장을 립검한후 범인의뒤를 추격하야 멀리 평북후창군남사동(平北厚昌郡南社洞)에 잠복한수범을 이난이십구일에 체포하고 다시 공범자를 추격중이라는데 피해자는 전귀주소에서 처자권속도업시 단독일신의몸으로 매양금수초목과 벗을삼으며 산농(山農)을해서 생활에 군색함이업는것을 유일의락으로알고 그날그날살어가는 가련한 박홍순(朴洪淳)이라는 사람이오 가해자는 동군동면동리(同郡同面同里)에 사는김익조(金益祚)(三一)로서 아직경찰의 조사가끗나기 전이므로 살인방화(殺人放火)에대한원인은 자세히 알수업스나 듣는바에의하면 피해자 박홍순(朴洪淳)의 돈을탐해서 강도하랴다가 죄를 은의하기위하야 살인방화까지 한모양이라고한다

唐津署員猛活動
모히中毒者打盡

【唐津】 당진경찰서에서는 지난 이십팔일에 돌연서원일동이 총출동하야 모루히네중독자 검거에 대활동하여 군내 면천송학리인의환(沔川面松鶴里印義煥)(三〇)외칠명을 총검거한바 그자들은 오래동안 아편중독자임을 당서에서 알고 금번사월경부터비밀리에 조사중이든바 금번체포한것을 발견이지하야 엄중취조 중이라한다

河淸夜學開講
朴斗權氏發起로

【統營】 통영군하청면지방은 원래농작지대로서 변령초과로보교에 입학못하고 문맹에금주리는 아동이 수백에달하야 지방주민

오케ー演奏會
十三日安岳에서

【安岳】 조선예술가를 총망라한 오-케회사에서는 그간남조선순회를 맛치고 특히본보를 후하야 오는십삼일에 안악태평극장에서 하로동안 연주할모양인데 특히 금번출연할 예술가는 본사라성식대에 출연하엿든 이의 전부로서 째-즈 던쎈쓰 촌극 레뷰유 류행가급 조선남북도소리등으로서 절대성황을 예기하고잇다고한다

猖獗하는流感患者 府內에만數千名
全府內各中學校에缺席生續出로 學務當局에서重大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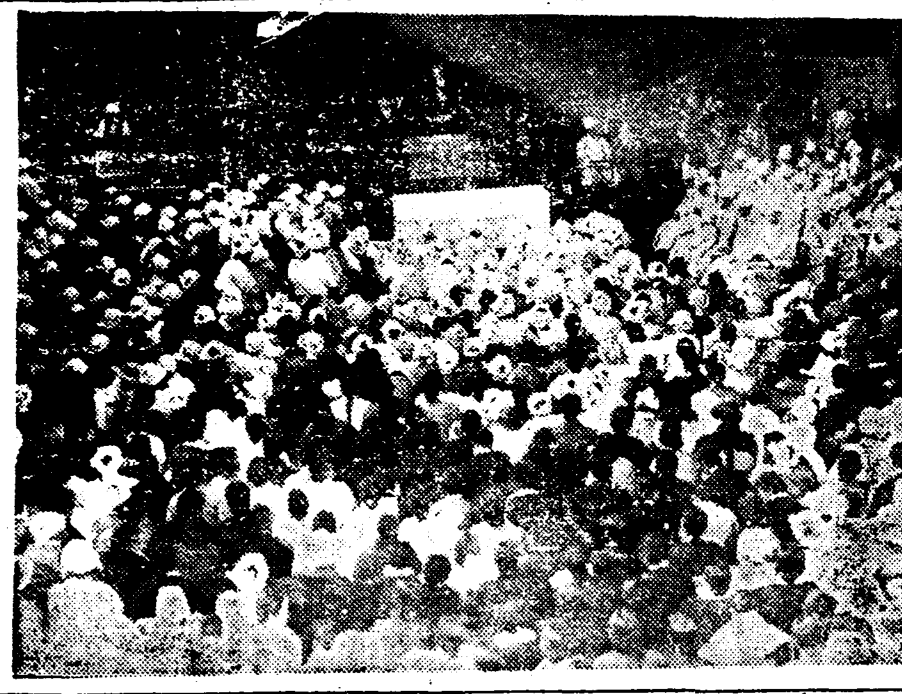
【平壤】 번덕스러운 긔후의영향인지 최근평양부내를 필두로 평남전쪽에는 한번걸니기만 하면 앗출한 악성의 류행감긔가 창궐하여 평양부내 각남녀중등학교와 초등학교에는 결석생도가 이할갓가히 생기고잇서 교수에지장을 일으키고 잇스며 각가정에서도 한두명의 환자가업는곳이업는 상태이므로 부학무과에서는 관내 각학교장에게 상황조사를 명하는일방 대책을 강구중이며 경찰에서도 전병호열조사를 하기로되엿는데 부내에만도 환자가 무려수천명에 달하리라한다

大盛況을豫期하는 大田의藥令市

【大田】 남조선의 명물 대전약령시(大田藥令市)는 거금 이십여년전에 처음으로 당지 유력한 한약종상 제씨의 발긔로시작되여 이래매년발전을 거듭하여 이때가되면 이삼십 여만원의 취인고를 내임으로 시장일대를 성황케하여오든바 금번에도 음력십일월십육일부터 십이월일일까지 사십오일동안 부내본정이정목(本町)에서 각산지로부터 과원들어떠 금번에는 단연 조선제일의 약령시를 개최하기위하야 충남의약조합(忠南醫藥組合)간부 제씨들은 날마다 협의를 거듭하야 오는바 특히우량한 약재를 구입함은 물론이어니와 일반 교의에도 만반의 편리를 도모 하기 위하야 극력준비에 분망 중이라한다 그리고 금변에는 동조합의 주최로 충남각지에 산재한 의생과 한약종상제씨가 일당에 모이여 가지고 삼일간(十二月十四、五、六日間)고명한 강사를 초빙하야 의학강습회를성대히 거행한다는바 일반의 긔대는 자못 놉다한다

葛田市에火災

【長津】 지난 이십오일 오후팔시경에 장진군 상남면 갈전시(上南面葛田市)한국흠(韓國欽)상점에서 불이나서 점포일동을 전소하고 상품도 소실되엿다는데 손해는 약팔백원가량이라하며 발화원인은 실화이라고한다



◇青善宙牧師永訣式光景(平壤) —昨日記事參照—

異次頓의死 【59】
李光洙 作 金奎澤 畵

거칠아비의 비죄한 행동에공목바틀손은 어악이 벙벙하야입을 크게 버리고 엘손가락을입 딜 멜면서 체머리를 흔든다。 분하고 패씸한것이엿다。

그러나 알공은 상그레 웃으면서、

『오、거칠마로、그말이루구먼。 편연 할 말이 업네。 그런데。』

하고 공목을 잠깐 바라보고공목이 할 말을 대신한다는드시

『그러치안아 으늘 자네를 부른것이 그 일이야。 자네가 하도 서룰트니까 업뜨신 바둡손이 고마웁론이 막히고말앗네그려。 지금 상감께오서 고구려에 가잇는 이차돈을 부르라신 분부를 나리섯는데、자네도 아다십히 고구려라는 나라는 무서운 나라이라 여간용긔와 재조가 잇지안코는 못가는데란말일세。 그러니 여간내기가 가다가는 평양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질검을 하여서 죽거나 도망해올것이란 말야。 인물도 잘 나아하고 언변도 조아야 하고 재조도 잇서야하거든 첫재의표가 비범하지안코는 고구려사람들헌테 휘둘려서 안 되고 둘재언변이 조치못하고는 임금응변을 못하고 셋재로 재조가 업고는 고구려와가린 재조 만은나라에 가서 백여나지를 못한단 말일세。 그러니 그런 사람을 찻는다면 자네밧게 또 잇느냐 말이야。 자네로 말하면 의표가 비범하여、언변이 조켓다 재조로 말하면 어찌 한번 실수로 이차돈헌테 패를 보앗지마는 우리신라에서 으뜸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마로이손께서도 자네를 마음에 두신것이데 자네가 하도서두르는 바람에 그만 얼뜬 공목마틀손이 말문이 꽉 막히고 말앗네그려』

하고는 또 공목을 한번 보고 깔깔 웃는다。

『이 사람아 얼뜬기는、사람더러』

하고 공목이 중얼거린다。

『말어야 말로하지。 공목 바틀손이 얼뜬지、안소?』

하고 알공이 또 깔깔 웃는다。

거칠마로는 놀리는듯、

『이차돈을 부르리?』 상감께오서?』 이、몸을리이차돈을 부르례 가린 말슴이오?』

하고 눈을 크게 뜬다。

그제야 공목이、

『그래야。 자네가 고구려로 가되 오늘 해 안으로 떠나면시는 분부서』

하고 위엄을 가초아서 거칠마로를 본다。

『이차돈을 불러?』

하고 거칠마로는 의아함을 마지아니한다。

『응、서라벌가 부르라신 분부시어』

하고 공목이 또 말한다。

『앗다 그게야』

하고 알공은、

『이차돈을 산채로 부르거나 혼을 부르거나 그것은 거칠마로 자네가 알아서 할것이아닌가。 상감께서는 이차돈을 고구려에 두는것이 호환이 잇슬까 염려하서서 하시는 분부시니까、용 거칠마로、알아듯지안켓나?』

하고 거칠마로를 보고 눈을 끔쩍한다。

『호올 부르다니? 원、그 사람 실어온 소리』

하고 공목이 알공을 노려본뒤에、

『그러면 거칠마로 군명이 지중하시니 술울랑녀 먹지말고 해안으로 떠나게』

한다。

『예、가오리다。 임금의 명이시면 몸꿀을 해아릴거칠마로오리까。 원수 이차돈을 업고오라시면 업고라도 오겟소』

하고 일어나 절하고 나가는것을 알공이 따라나가며

『거칠마롱、왼 몸을 업고 오자면 무겁지아니한가。 머리만 업고오소』

한다。

거칠마로는 어느 말을 미러야 조흘지 모르는 드시 한참 뒤를 돌아보다가 알공이 눈을 끔쩍하고 손으로 제 목을 버히는 사늉을 하는것을 보고는 알아들은드시、그러나 아모 대답도 업시 공목의 집에서 나와버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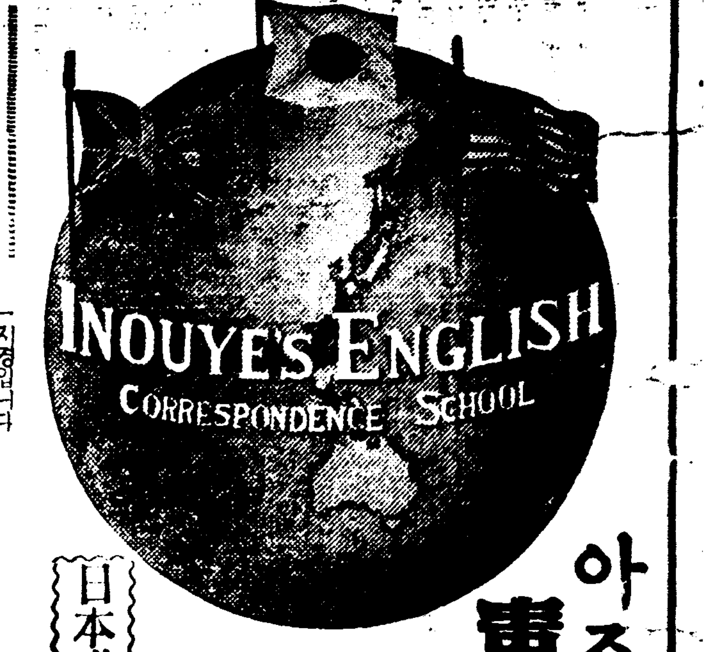
『평양이 여기서 일천하고 오백리 기럭이가 날아가도 사흘하고 이틀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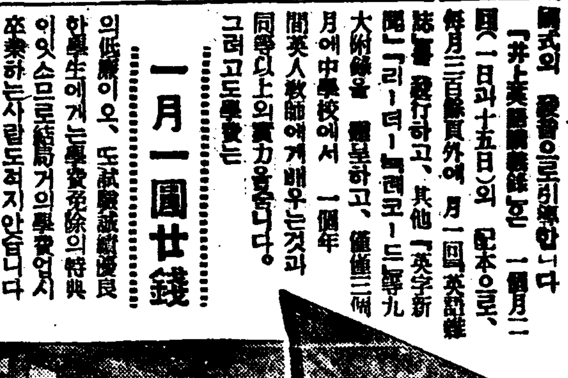
하는 노래를 읊조리며 집으로 간다。

아조好況時代가왓다!! 靑少年諸君! 一刻이라도빨니

英語로 武器를삼읍시다!!

日本唯一의 井上英語講義錄 을勸함





井上英語學校主催 青年英語雄辯大會 와井上十吉杯獲得 優勝者

英語는世界語

躍進日本의 旗幟下에 現在海外에 內地에 商工業의 第一線에活躍하는 幾萬의靑年들은 世界共通의 商用語인英語를 武器로하야 奮發努力에의 一路를 邁進합니다 보십시오! 現在世界中어데를 가거나 通用하고 어데던지를 쓰거나 읽게되는말은 亦是英語外에는 업다고할것입니다。 每日의新聞雜誌에 라디오에 또모든商品에 英語업는것이잇겟습니가? 이와가티英語는 이미 我等의 日常生活에들어와 잇습니다。

(我國英語界의父井上十吉先生)

文部省의方針

그러하기에 我文部省은 中等敎育에 一週數時間의英語時間을課하고 高等學校、專門學校에서도 入學에當하야 于先英語의學力을試驗하기를 規定하엿슴 지경입니다 갓에勤하고자하든

井上英語講義錄

은 目下全國二百餘의中等學校에서採用되는我國唯一의完備된英語通信敎授로十二年前에創立된後로卒業生五十餘萬現在의在學生은全國에서十七萬에及합니다。執筆者는英語辭典二百萬部를著及하야世界的記錄을지으신井上十吉先生그平易明快한講義는有名한것으로不過十二三歲의少年까지도터득터득顯著한進步를 보입니다。

레코ー드를添付

더욱그外에는當社에서編纂한講義錄에拜外서我國最初의著音器레코ー드(無料配布)에依한學習音法을試驗하야成功하고잇습니다 레코ー드의吹込者는 라디오英語講座로 親히아시는 文理科大學敎授로ー마스先生 그明快한純英講式의 發音으로引導합니다

레코ー드吹込者로ー마스先生

「井上英語講義錄」은 一個月二圓(一日과十五日)의 配本으로、每月三百餘頁外에 月一回 英語雜誌를 發行하고、其他「英字新聞」「리ー더ー」레코ー드等九大附錄을 贈呈하고、僅僅二個月에中學校에서 一個年間英人敎師에게배우는것과 同等以上의實力을養合니다。 그러고도學費는

一月一圓廿錢

의低廉이오、또試驗成績優良한學生에게는學費免除의特典이잇스므로結局거의學費업시卒業하는사람도적지안습니다

新學期開始

本校에서는다시十二月一日부터本年度第五回의新人學者를募集하게 되얏습니다 希望에불타는諸君?? 只今英語를始作하야서光輝잇는新春을마지하기를비는바이다

講義錄見本進呈無代

葉書로申込하시는대로七十頁以上의아름다운講義見本을送呈합니다。

(申込所)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三丁目十九番地

井上通信英語學校

振替東京三〇二八八番

大福引付

歲末大賣出し

一階 時計·寫眞機
二階 御贈答品·眼鏡

特等 勸業債券二十円券十枚宛
壹等 名刺判寫眞機附屬品付壱台宛
二等 應接机一脚宛
三等 高級置時計一個宛
以下九等迄空籤ナシ
御買上五円每ニ抽籤券呈上

十二月一日ヨリ
御買上壹円以上景品券進呈

京城本町
大澤商會

頭髮洗粉

花王シャンプー
화왕샴푸

黑髮을직혀라!

빗나는黑髮이야말노 東洋婦人의자랑이다

花王샴푸ー의洗髮로貴女들의고흔머리를 언제나깨끗하고艶麗하게시쳐주시오。

花王샴푸ー는少量으로도때가잘빠지고、獨特한美髮劑作用으로黑髮의潤을더하고成長을도음니다。

長髮……一回
斷髮……二回

一個·五錢

有力百貨店 名藥店에잇소

171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五日ヨリ四日間特別大公開 大衆席十錢均一
大都映畫撮影所特作時代劇
中島寶三監督作品
海江田譲二、一人二役主演
◇江戶劍飛脚
淺山龍之助 春木華子 久松玉城
赤星三郎 山吹德二郎 助演
パラマウント超大作映畫版權獲得
不滅의名篇 ヨセフ・フオン・スタンバーク監督
ゲーリー・クーパー、マレーネ・デイトリッヒ主演
◇新版モロッコ
アドルフ・マンジユ、ウルリッヒ・ハウプトイーヴ・サザーン、フランシス・マクドナルド助演
灼熱한沙漠モロッコ의밤사랑을음악하야서アミイ는外人部隊의뒤를千里의彼方에따랏다
대면異國의하늘、眞實한사랑을求
大都映畫超特作現代劇
太田辰三監督作品
北見禮子、佐久間妙子主演
◇浮世草春のめざめ
藤間林太郎、伴淳三郎助演
櫻井町 電本 八〇五
大正館

「春風特別週間」
十一月三十日낫부터 晝夜三回興行(斷然公開)
正午十二時-三時-七時半始映
朝鮮映畫의絕對的豪華版!
朝鮮日報連載 發聲映畫를凌駕하는超規模的純粹藝術篇!!
映畫時代社超特作、
春風 處女篇 人生篇十四卷
原作、脚色 安夕影
監督 朴基采 撮影 梁世雄
主演 李慶善 金寅圭 卜惠淑 文藝峰 金一海 朴孤松
空中冒險活劇 구름과날개 全八卷
와나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데이、로스、레다ー만監督
파일、달보 라보작크 主演
스릴百%肉彈相搏! 空中冒險奇活劇!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極彩色漫畫
龍宮이야기 全一卷
엉러리音樂家 全一卷

十二月六日밤브터
演劇號第三回大公演
三千餘圓의巨額으로
新作三重連鎖劇、暴風前夜製作品
支那猛鬪大活劇其外는當겨운帆船外名作의大壯觀!乞期待
仁寺洞 電話三六三
朝鮮劇場

十二月二日ヨリ三日間大公開
二大巨篇特選名畫上映!!
每日三回興行 正午十二時 午後三時半 同七時半
大衆料金 階上席二十五錢 階下十錢均一
新興키네마社實錄劇作品
前木繁太郎監督
時代劇 劍鬼三人旅
十思藏、覺壽郎二役大熱演 秋季超大作
嵐寬壽郎의特出演技!今秋映畫에 는特別로二役主演으로大大的으로 熱技를吐한大劍劇!乞期待!!
비ー데시社特作品
巨星루바ー드주의안監督
血淚篇 沈默
엣지비ー와나씨
와라레일노ー스씨 主演
一九三四年西部刑務所에서死刑을 기다리고잇는罪人? 그는辯護士가 訪問하여도누구의게든지 斷然沈默 을직히는事件이잇섯다! 世人을驚 異식히는此名畫아말로그얼마나諸 氏에게感激을맛본거…感激! 熱 淚의名篇??
鐘路四丁目 電光九一四
第一劇場

十二月五日封切
每日三回 午前一〇、五〇分 午後一、四五分 六〇、三〇分
◆上海聯華影片公司超特作
脚色監督…鄭雲波
中國의名星 阮玲玉女士主演
再會吧、上海 (さらば上海)
半島가나흔映畫作家 鄭雲波는現中國映畫界名匠으로서八年後故國訪問唯一한푸레센트
◆ウインユニヴァーサル超特作
ヘルマンコステリッツ監督
フランツイスカ、ガール主演
ハンス、ヤーレイ助演
ペーテルの歡び
明朗한感覺과快適한魅力을가진新時代의女性의快活과情熱을가지로만리즘이舊般을깨치고奔流하다
大朝世界ニュース 五
大每國際ニュース 篇
全鮮第一 映畫殿堂 電光 九六〇
團成社

十二月三日부터特別大公開!
萬人羨望의名프로!
유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에도우인에루마린氏大作品!
殺人急行列車
에도몬드로ー氏
샤ー레그레ー嬢主演
가르갓다를出發하여몬떼이를向하는急行列車!

十二月一日부터六日間
大衆映畫奉仕週間(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全部發聲國產日本版
(1)와ー너ー社
루이드메ー콘監督
죠ー이ー브라운主演
(2)와ー너ー社特作全發聲
부라운野球大奮起 8
(3)뉴ー스맨監督 리쓰카그니主演
拳鬪카그니ー 7
(日本版)
夜間一日……五日까지
東京少女歌劇 公演
六日晝夜
野談大會
野談同人會主催 朝鮮日報社後援
大衆文化의第一線에서나날이자라고잇는野談이大京城大舞臺에서처음으로웨치는바이니野談愛護家는勿論、野談이무엇인지를알고저하는이도一機會를놋치서는큰일이다 그야말로一宵萬金이다
次週上映名畫七日낫부터未完成交響樂八卷、商船테나시티八卷
竹添町一丁 電光3三二番
東洋劇場

二十九日부터特別大興行
空前의東西二大巨篇同時封切의大壯擧本シマーン의最後를裝飾할中央館의大暴擧新興キネマ高田プロ松竹キネマ大合同超特作大阪每日東京日日新聞連載小說의映畫化
原作 久米正雄 脚色 陶山密
監督 曾根純三 高田稔 主演
龍涎香 全十四卷
オールサウンド
伏見信子 伏見直江 霧立のぼる 山路ふみ子 江川なほみ 岡田靜江 岩田祐吉 小宮一晃 生方壯兒 外新興キネマオルスターキャスト
獨乙ウフア映畫社超特作
リトウイッヒ・ベルガー監督
ウイリイ・フリッチ
アドルフ・ウオールブリユック 主演
ワルツ合戰 全十卷
陽氣와陶醉에勝引도四分의三拍子!音樂의都ウイン을背景으로甘美한メロデー!
永樂町 電本三五一
中央館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番

十二月五日부터 十二月十一日까지 晝夜三回上映
地上の星座地上篇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一一、二〇 二、四〇 六、四〇
一、八 四、一〇 八、二〇
地上の星座星座篇
빗나는傳統의아름다운자랑하는蒲田의豪華版 只今은당신들의생각나는 알면서中에屈指의名篇
故野村芳亭作品
故牧逸馬原作
『主婦の友』連載
蒲田サウンド版
地上篇、星座篇 同時上映
川崎弘子 田中絹代
外オールスターキャスト
洋畫專門
浪花館

金剛키네마社超大作映畫!
原作監督安鍾和氏
李源鎔 申一仙 主演
銀河에흐르는情熱
朴齊行 李慶善 助演
沈影 金寅圭 助演
黎明의하날찬空氣에부다처明快한빗을희날이는銀河와가티우리살림을幸福잇게하여줌이다 地上樂園을建設하자는異彩잇는情熱劇篇
流新키네마社超特作映畫
脚色監督 李圭煥氏
임자업는나루배
羅雲奎 金蓮實 主演
文藝峰 林雲鶴 助演
鍾路 電光二九六
優美館

朝鮮內不動產抵當 個人貸借金利趨勢

③……朝鮮殖產銀行調查課發表

▲不動產抵當個人間貸借趨勢 昭和十年의 不動產을 抵當으로한 個人間 貸借의 情勢를 調査하면 前年에 比하야 增加一割三分一厘, 減少七割二分三厘, 增減一割四分六厘로 昭和七年 減少가되以來 一路減少한 貌이엿다 그現像는 前年의七割九分四厘에對하야 今年의七割二分三厘로七分一厘가 減한點으로보아 前年에比하야 그勢가多少銳한傾向이잇는바 그增減의事由를槪觀하면貸借가 減少한것은그主因으로

(一) 農村振興運動의徹底는 農家에高利債整理의必要를 痛感케하엿스나 前年以來繼續하야 預金部의 舊債整理低利資金이 金融組合을 通하야 散布되엿슴으로이에借換整理할것이만흔일

(二) 昨年以來穀價와 田、畓價格의昂騰은農家의 舊債償還를容易케하얏슴

(三) 朝鮮殖產銀行、金融組合及東洋拓殖會社等의 金融機關을 利用한것이 만케되고 特히 此等金融機關의 一般低金利에順應한貸付利率의引下는 個人間의高利債整理를 一層促進한모양이다

(四) 個人貸金業者中에 新現貸出를錯精하고 또는 他業에轉한것이 不少한일

等을들게되다 其他地方的貸借減少의特殊事由로 鐵道工事費와 大工場建築費의散布, 海產物收入의增加, 豊作等이그理由이다

다음에 貸借가增加한것은 그事由로

(一) 舊債整理土地買戾資金의貸方側에 需要되엿슴

(二) 水害、旱害、冷害等을原因으로 復舊또는生計資金의需要를喚起한일

等이다 其他鑛業과木材伐採事業의殷賑, 鐵道、水電工事及國境新市街의發達에伴하야 西北朝鮮의 鑛地帶에 膨脹하야 新規資金의需要가잇다고 報하얏다。昭和十年不動產抵當個人貸借의 增減趨勢를道別로 示하면 如左하다。

道別	回答件數 增加	減少	無增減	計
京畿道	五	[illegible]	六	[illegible]
忠淸北道	四	[illegible]	三	[illegible]
忠淸南道	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羅北道	二	[illegible]	五	[illegible]
全羅南道	[illegible]	[illegible]	七	[illegible]
慶尙北道	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道	[illegible]	[illegible]	六	[illegible]
平安南道	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安北道	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道	六	[illegible]	八	[illegible]
咸鏡南道	九	[illegible]	二	[illegible]
咸鏡北道	[illegible]	二	五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 [illegible]

個人間貸借現在高豫想

前揭調査의資料蒐集에 當하야 各金融組合에 其區域內의 現在擔保貸借高를 照會하얏더니 其資料를送附한것이 村落組合五百一 同都市組合三十四 合計五百三十五組合에逹하얏다 이것을全朝鮮의金融組合六百九十三에比하면 七割七分二厘에當하고 村落組合과都市組合의同比率은 村落에잇서 六百三十一組合의 七割九分四厘, 都市에잇서 六十一組合의 五割五分七厘에 當한다

右資料를 村落組合及都市區域의區分에從하야모으고 各一組合當平均高로써 假令無報告組合區域의 現在高를補充하야 各道內의 個人間貸借現在高를 推算하면全朝鮮十三道分合計 一億五百二十一萬五千圓이다。이것을 前年의 一億六百三十五萬二千圓에 比하면 百十三萬七千圓의 減少에當한다。

朝鮮耕地總面積 四百四十六萬町步

比前年七萬五千餘町步減 =九年末現在調查=

總督府調査 昭和九年末現在 土地所有狀態를보면 總耕地面積 四百四十六萬九百五十九町步로 前年四百五十三萬六千五百三十七町步에 比하야 七萬五千五百四十八町步의 減少를示하얏다。

朝鮮人은人數增 所有面積은反減

日本內地人과外國人은人數減이나 土地集中傾向顯著

그所有別은 日本內地人 十萬七千九十八人에對하야 그所有地四十二萬一千九百四十六町步, 朝鮮人 三百六十五萬一千百七十二人에對하야 그所有地 四百三萬五千三百四十町步 外國人 千七百七十六人에對하야 그所有地 三千六百七十三町步인데 이것을 前年의 日本內地人 十萬七千九百三十一人 四十一萬四千六百五十六町步에比하면 八百三十三人減 七千二百九十町步增加 朝鮮人四百十萬六千七百三人 四百十一萬八千三百四十三町步에比하면 四十五萬五千六百三十一人增 八萬三千三町步의 減少 外國人 千九百十六人, 三千五百八町步에比하면 百四十人減 百六十五町步의增加로 結局 日本內地人及外國人은 土地所有者數가 減少(日本內地人은 八百三十三人減 外國人은 百四十人減)하엿슴에도不拘하고 耕地新面積에 잇서서는 增加(日本內地人이 七千二百九十町步增 外國人이 百六十五町步增)된 反面에 朝鮮人은 土地所有者數가 四十五萬五千六百三十一人의 增加를 보앗슴에도 不拘하고 그所有面積에 잇서서는 도리어八萬三千三町步의 減少를 示하엿다。

이와가티 一部에잇서서는 土地集中의 傾向이 濃厚하여젓슴에 反하야 他反面에는 土地零細가 加速度로 되고잇는것을 알수잇다。

前記統計를 다시 細分하면그 事實이 瞭然함을 알수잇다。

朝郵또二隻傭船

朝鮮郵船에서는 米出廻期의 船腹不足緩和와 朝鮮米積取用船腹을 補充키 爲하야 今回更히 鈞山丸(五、四一四噸)을 十二月中旬부터 三個月間 明星丸(三、一〇〇噸)을 十二月下旬부터 三個月間傭船하고 各自營航路에配船하기로되바 그結果同社의傭船總噸數는 二萬八千三百三十四噸으로되엇다 그船名은 如左하다 (單位噸)

明星丸(三、一〇〇) 鈞山丸(五、四一四) 大海丸(四、一〇〇) 喜美丸(五、一〇〇) 立神丸(三、一〇〇) 大連丸(三、七五〇) 佐賀丸(三、七七〇)

產業課長會議 今日부터開催

各道產業課長及 商品陳列所長協議會는 四日午前十時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穗積殖產局長統裁下에 開催하고 堂本商工課長以下 總督府側及 各道產業課長、關係官等 四十餘名이 出席하야 劈頭 今井田政務總監의 訓示(殖產局長代讀)가잇고 뒤니어 指示事項에 入하얏다

指示事項

一、產業組合의 指導監督에 關한件

二、新設產業組合의 設立指導에 關한件

三、產業組合의 購買事業에 關한件

諮問事項

四、輸出柑橘取締에 關한件

五、重要輸出品檢查規則에 關한件

六、職工의 供給에 關한件

七、計量取締에 關한件

繼續하야 午後부터諸問事項의答申에 移하얏는데 同會議는 六日까지 連續開會하고 工業界當面의 諸問題의 協議를할豫定으로 五日以降은 商工獎勵館에서 開催할터이다

群山附帶費解決

紛糾를 거듭하고잇든 群山港의 荷主、船會社代理店間의 附帶費問題는 朝鮮米積取最盛期에 入하얏슴으로 船會社方面에서도 그推移를 注目하고잇든바 兩者折衝을 거듭한 結果 三日午後에 이르러 雙方의 意見이 一致되어 如左한 條件으로 解決을 보앗다

一、附帶費는 年內現狀대로 向拂(到着拂) 一月一日元拂로하고 一船마다 徵收한다

그러나 벌서부터 懸案이되어잇는 附帶費의 二元에 制對하야서는 荷主는 依然히 岸壁荷役을 主張하고 잇는 貌樣으로 現在로서는 何等問題가업스나 今後機會가 잇슬때마다 問題化할念慮가잇다

日本滯貨生絲 英領印度賣込 紐育絹業界推測

【紐育三日發聯通】紐育絹業界에서信하는바에依하면 日本政府當局에서는 補償生絲滯貨品中에서 約三千俵를 英領印度에賣込할手續을取하고 이로써英領印度方面에對한賣込은 一萬一千俵가되리라고보고잇다 또東京滯貨에서 一萬四千俵를賣出할 計畫이잇는데 그것은 米國에向할것으로보고잇는데 日本當局이 이機會에 滯貨[illegible]

郵便貯金總額 五千餘萬圓

比前年一割二分增

全朝鮮郵便貯金十一月末現在의預金者總數는 三百三十七萬一千三百四十七人으로 그預金額은 五千九十六萬五千百九十三圓인데이를 前年十一月末現在高에 比較하면 預金者數로九分、預金總額으로一割二分이모다增加되엿다

釜浦港海苔生產

【康翎】甕津郡鳳頭面釜浦港에서는 昨年부터 海苔養殖試驗을한結果成績이 良好하야 今年에는二千三百棚의 海苔를 建立하얏는데 今後 天候의 順調로보게되면今年은 十餘萬圓을 生產하게되리라하며 十二月初、中旬에 新品이出廻하리라한다

十一月中荷動

十一月中의 鐵道局線貨物發送數量은 合計七十四萬四千二百七十瓲으로 前年度同期에 比하면 十萬九千五百六十六瓲의 增加를 示하얏다

土地改良清算總會

朝鮮土地改良最後의 清算總會는 本月開催할 豫定이엿스나 事務上 形便으로 來年一月開催키로되엇다 最終解散配當은 一株에五十錢이 되겟슴으로 結局同社의解散配當은 十圓五十錢이 되리라한다

米穀自治管理案 朝鮮側徹底反對!

米穀關係諸團體蹶起할形勢

今議會에 上程할 米穀自治管理案에 對하야 朝鮮側은 朝鮮農會、米穀硏究會、朝鮮穀物協會聯合會等米穀關係諸團體는 느저도 今月中旬까지에 役員會를 開하고 朝鮮米의 差別待遇와 需給推算의 誤謬를 指摘하야 徹底的으로 反對運動을 起할形勢이라한다。

▲京城穀協自重 京城穀物協會는 有賀穀物協會聯合會長이 米穀顧問인關係上 米穀自治管理案에對하야 反對치안코 自重하고잇는데 이번議會劈頭에 解散이되면 流產이되기나 바라고잇다한다。

更生水組好成績

米高、豊作二重奏로 三十萬八千圓積立

米高、豊作二重奏의 好環境에逢한 更生水利組合三十五의 今年度業績은 자못 一般으로부터 期待되고잇든바 前月中 四回에亘하야 更生水組聯合會委員會에 依하야 各組合의 業績으로 査定하고 그 歲入缺陷에 對한 補助額을 決定하얏는데 그結果 今年은 水利組合內에서 모다作況이 자못 良好하야 今年度의 歲入缺陷補助豫算總額七十五萬圓中 補助를 必要로한 額은 四十五萬圓으로 殘餘 約三十萬圓을 남기고 그대 第一次積立金으로 次年度에 繰越하기로되엿다 即 今年度의 業績으로보면 約四十五萬圓을 積立할수잇는 好成績이나 舊債償還의 期間을 變更하야 今年度下半期의 舊債를 加하야 來年一月부터 三月의 官廳年度末까지의 償還豫定分까지 今年度의 業績中에서 捻出하기로 變更하얏슴으로 各水組의 償還額은 約十五萬圓을 增加하게되고 이에 充當하고 三十萬八千圓을 積立하기로되엿다 各水利組合中 今年度의 增收에 依하야 全然補助를 要치안흔組合은 九組合에 達하야 今年度의 豊作及米高가如何히 水組의 更生上에 好影響을 與할가를 말하고잇다

그리고 今年度의 補助豫算은 大體七十三萬圓으로 될貌樣인데 이에 今年度의 繰越積立金三十萬圓을 合하야 約百萬圓의 餘裕를生하얏슴은 總督府의 水組整理計畫이 第一年에 잇서서 完全히 成功한것이라하야 關係方面에서 多大한 期待를갓고잇다

安東縣製材工場 整理斷行

新義州側에有利

【新義州】鴨綠江岸 原木業者의 滿洲國取引組合인 安東縣 製材業者는 現在의 十九製材工場을 六工場으로 整理하야 그 六工場이 團結하야 生產、販賣에當하야 材價의 協定을 하게되엿는바 前記와가티 製材工場을 整理하게된 重大理由의 하나는 過度的濫立에 依한 共倒防止의 自衛策과 滿洲側 鴨綠江材에 依하야 自給自足하게되리만한 程度의 整理이다 그런데 最近二三年間과 가티 新義州側으로부터 原木의 輸出을 보고 또製材가되여 朝鮮內로 流入을 보고잇든데 以上과가튼것은 表面的事情으로 생각하면 新義州製材業者에는 有利하게 展開되는 모양이라한다

經濟界消息

○朝鮮電力重役會=朝鮮電力株式會社에서는 九日 午前十時부터 京城事務所(朝鮮火災빌딩內)에서 重役會를 열고 寧越의 火力發電所、大邱、大田의 變電所送電線架設設計等에 對하야 協議할터인데 右重役會에 出席次同社副社長內藤熊喜氏가 九日朝入京할터이라고

來年米棉收穫 千百萬俵以上

農業調整局專門家談

【華盛頓三日發聯通】米國農業調整局의 專門家는 三日如左히말하얏다

來一九三六年의 米棉收穫은千百萬俵와 千二百萬俵의 中間이겟다。假令 방쿠헤드法이大審院의 示唆에破하드래도 그後에 安當한 融資及補償金組織을 結成키에 贊成者名會辭치안흘것이라고 確信한다。

米日嵩續小高

【紐育三日發聯合】今日의米日弗價는 前日과比較하면 賣二十八弗七十六仙으로 一仙高이오 買二十八弗七十四仙으로 二仙高이다

東京爲替(四日)

對米賣 二十八弗十六分之十一 買 二十八弗四分三

對英賣 一志二片三十二分之十一 買 一志二片

大阪爲替(四日)

對米賣 二十八弗八分五 買 二十八弗四分三

對英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十六分之十五

今日財界 (四日)

◆米 (單位圓)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京城三等正米	一石	[illegible]
正租(仁川)	上	[illegible]
一斤價	下	[illegible]

◆市中金塊價 一匁價 [illegible]

◆株 (單位圓)

朝取	前引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朝取	後引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圓)

大阪綿花	[illegible]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京城生絲	[illegible]
商 品	[illegible]

○不二興業增收=不二興業의今年度產米收穫은平北農場만不作이오 全羅農場은豫外의增收로結局前年보다 一萬石增收의二十一萬石이될모양이다

商况 (四日)

株式 賣人氣로 不勢

前場低落 北中問題를 重視하고 整理賣가繼續되어 今前場은 諸株賣押되엇스니 即昨後引에比하야 東新一圓八十錢低인百七十圓六十錢、大新八十錢低인百七十一圓十錢、日產一圓低인 七十三圓九十錢、鐘紡七十二圓十錢、朝新七十錢低인三十一圓四十錢으로 各大引되고 拓新百五十二圓五十錢으로 五圓二十錢 鐘新百五十六圓五十錢으로 六圓八十錢이 이잇섯다

後場區區 後場은 保合寄後大阪小堅으로 下支하야 結局前引에 比하야 東新九十錢高인百七十一圓五十錢 大引이엇스나日產은 七十一圓五十錢에 低落되고 大新 百圓九十錢에 弱하얏다

鐘新만獨特高

東京에서 大口買思惑中인 鐘新은 자조拂込徵收를 市場內에서 放送되는바 今前場도 東新、日產、大新等總히一齊低에 逆行하야 鐘新만獨特高를 演하얏슴으로 當地도百五十六圓八十錢에까지暴騰되엇섯다

目前一段低?

大勢的으로는 强氣觀을가저야하겟스나

一、東新百七十圓臺는 老境에 入한感이不無하며

一、商品界는 生絲、人絹等이 모다 低迷不勢로서 商品界惡化念慮가잇스며

一、取組는 大取組로 增加되어壓迫이잇고

一、北中問題는 어찌될지 갈팡질팡한다

以上等에依하야 먼저 적어도十五圓押가려떠러진後 再上伸할것이나아닐가? 東新百七十圓關門이 트트지못한點으로 그런생각을가지게하고잇다。

北中問題靜觀

北中自治問題는 何應欽氏의北上으로 大詳定中인데 中庸的最高機關設置로解決을傳하나 果然어떠할지 株式市場에서는 目下形勢를 靜觀中이다 그러나根本的으로는 日本에不利한結果가업시 中間波瀾은何如間 日本國威伸長에를림업스리라는것이 市場人의共通한 前途觀이것갓다

時局株는轉落

一月과十二月新甫對比

今年一月四日의 初市勢當日의 短期主要株寄付價와 十二月二日의 그것과를對比하면 如左한 差異가잇다。(單位十錢)

	十二月二日寄付	一月四日寄付	比高△安
新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八九、九	[illegible]
日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糖	九一、一	[illegible]	[illegible]
東電	五八、六	[illegible]	[illegible]

即 過去의 人氣株로 浮上되엿든 時局株는 그後轉落되고 一時的으로 時局株로서 買하얏던것은 人氣를 喪失한反面 取引所株、電力株가튼것은 逐次價位를 高히고 日產과 人絹株等 從來人氣를 一身에 集中하야 騰騰되엇던것은 모다低下되어 時局株의轉落을 보이엇섯다

實物株前場取引

賣買高一八〇枚 ▲鐘紡人絹[illegible] ▲日本郵船[illegible] ▲日產新[illegible] ▲東洋拓[illegible] ▲日滿아루미[illegible] ▲京南鐵道[illegible] ▲鹽水港新[illegible] ▲鮮滿開拓[illegible]

期米 小高後에 釘着

前場小高 昨後場阪地三十一圓〇六錢止와 共히 二十八圓八十二錢에 寄하고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illegible]

後場釘着 後場은 二十八圓八十七錢에 一丁高로始하야 八十五錢에止하야 結局[illegible]

度는 早晩間에 買上을 實施하리라하야 依然 强材視하는 關係上 手持米를 賣急치안코 時日을 期待하고 잇다 그러나 時期가 時期인만큼 換金急히 賣物이 現出하야 賣勢일蹶하는 感이 업지아니함으로 반드시 昂騰할이라고 斷키도 難하다 그러한點으로 보아서 昨後場부터 幾分高價를 示하엿스나 保勢의 分岐로 確信할수업슴으로 買方도또한 活氣를 帶하지못하고 當分傍觀하는光景이다

群衆依然强化

大勢에追隨?

新穀期에 入한以來 正米市場은 例年에보지못하든 大閑散을 呈하야 新米時代의 氣分이 毫無함으로 一般群衆은 前途高를必期하고 買戰線으로 蝟集하는光景이다 勿論日本內地米의 實收高는 第二回豫想보다도 더減收될것으로 누구나是認하는바이며 政府의立場에잇서서도 今後高米價를 調節하라면 적어도 二三百萬石의 買上을要하지안흘수 업슬것이다 그럼으로 產地農家로서는 換金急의買物外에는 絶對賣惜主義로 時日을費하는 狀態이며 淸算市場의 人氣도 自然强化하야 今後大勢를 挽回하려하는모양이다 果然前途大勢에 잇서서는 누구나 高價를 否定하지 못할것은 事實이나 그러나 市勢란 人氣에 背馳되는 例가 多함으로 此年內에 一段落을 告할지도 亦未知인만큼 買方도 亦警戒하는 모양으로 依然保勢를 離脫하지못하고잇다 今後果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 限 [illegible]

市場六感

株 雜株方面은 特殊事情에 依하야 部分的堅調이나 全般的으로步調不一致▲鐘新은 暴騰東新은 百七十圓이 무거웁고 日產은反强之勢▲軟派는 臆劇物을 賣狙하야 全體를 崩코저하며 强氣는 買煽키쉬운것을 올려세워서 全體再好氣分을 醸成코저 强弱對峙戰이 壯談▲明年度 豫算案 成立이나 議會解散必至情勢、北中自治問題가 時餘相半으로 樂非未判 商品界不透明、大取組緊迫等으로 目前一段低가 쉬울모양▲二十餘日바게 남지안흔 今年市勢 果然如何?

米 昨後場부터 幾分買氣旺盛하야 十餘丁의昂騰을 示하엿스나 高價에는 亦買物이稀薄하야다시伸惱 ▲勿論前途大勢의昂騰은 누구나 否定하지못할境遇에入하엿스나 此에서 一擧棒上의高價는 期待키難할모양 ▲例의 政府의買上이實施한後에는 所謂强材의 出盡으로反히 低落을 告할지 누가알라? ▲그러고 今年內에實施하라든 買上을 明年度로延期하는때는 期待하든 買方의狼狽로 反落할지도 亦未知▲그런데 農家의 方針은 賣惜又는 平均賣의 方針으로 賜減하는 모양임으로 深人落도또한難望▲何如間 此年內에 特殊한强材가 잇기外에는 此邊에서稍高稍强으로 保勢를 繼續할모양인즉 어떠한 新規材를보기外에는 作戰키難한 狀態▲그럼으로 찰아리 傍觀하다가 어느편으로 기우러지는때에 着手하는것이 得意일것

釜山底固

委員會를 明日에두고 突込警戒이오 雙方消極的態度이나마 定期强調와 移出價의 買氣潛在로 氣配十錢高唱인 角ㄱ三等二十八圓八十五錢 四等二十八圓六十錢 一等白米十一圓九十八錢

大邱引締

小口가 補充的으로 買拾하는 程度이나 賣物薄인데다가 期米의 好調를 移하야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小高

極度의賣物薄을生한데다가定期의引締을移하야市勢는五錢小高인 丸仁三等二十八圓四十錢 四等二十八圓十錢 一等白米二十圓五十錢

仁川小康

依然强行은 極히不振이나 產地의出廻가 鈍한데다가 [illegible]

群山小强

[illegible] 一等白米十一圓八十錢

木浦堅調

月初의 實行期待와 當用買注文에 援하야所持의 賣惜態度가 助長되어 市勢十錢 [illegible] 一等白米十一圓八十錢

當島前場情況

【大阪電話】明日의委員會待로 變化가乏하고 新規材料가 업는데다가 取引은 補償關係에 依한 賣買換物이 잇을뿐으로 新落不勢이엇다 ◆賣方 東京側乘換中央側乘換 地場小口側 ◆買方 地場强氣側 正米側期派 乘換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二六五

金銀賣買 奬金號
地方注文歡迎送料先金
京城府貫鐵洞一二四
電話長光一一五九九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送料先金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金融 (四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四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四日)

◆京城綿系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蚕絲市勢 [illegible]

◆치카코期米 [illegible]

◆綿油冲價 [illegible]

◆鯖搾粕冲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期米 (四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新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株式 (四日)

◆朝取實物 [illegible]

◆取引日步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長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取引所賣買高 [illegible]

商品 (四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